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遠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英國態度軟化로 對獨戰線에 異狀!

爆彈宣言에 英은 消極的態度

佛國側은 不平滿滿

【巴里二十日發聯合】獨逸政府의 爆彈宣言을 契機로 英佛兩國政府間에서는 重大한 意見의 相違가 表面化하야 歐洲의 國際政局에 本紙의 紛糾를 惹起하기에 至하엿다 히틀러總統이 伯林會議를 압두고 非難的으로 徵兵制度實施를 宣言한것은 베르사이유條約의 一方的廢棄뿐만아니라 羅馬協約, 倫敦宣言의 主旨를 正面으로 蹂躪한 傍若無人的方策이다 如斯한 政府의 暴狀에 對하야 英國政府가 微溫的인 照會를 發하야 局面糊塗策에 出한것에 對하야 佛國政府는 憤慨를 不禁하고 英國政府의 回答을 기다리지안코 獨斷的으로 聯盟에 提訴한것도 英國政府의 背信行動에 對한 應酬라고도 생각되다 獨逸政府가 十六日 爆彈宣言을 發表하자 라발外相은 急遽프랑당首相과 協議를 遂하고 直時 英國政府에 照會의 通牒을 爲하야

一、獨逸政府今回의 行動은 倫敦宣言의 主旨를 無視하고 全혀 新事態를 惹起하엿다

一、따라서 獨逸政府에 對한 共同動作에 當할 必要上 英佛伊三國政府는 卽刻商議를 遂할 必要를 認함

一、此際에 聯盟提訴乃至有効適切한 方策에 出하지안흐면 아니된다는 旨를 强調하엿는데 英國政府는 右照會를 全혀 無視하고 獨斷專行的으로 微溫的通牒을 獨逸政府에 通達하기에 至한 以上 英國政府의 行動에 對해서는 佛國政府는 極度로 憤慨의 意를 示하고 卽時 倫敦駐箚大使콜빈氏를 通하야 强硬히 抗議하게하엿는데 一方伊國政府는 劣勢한 海空軍兵力을 優勢한 陸軍兵力에 依하야 補充하지안흐면 아니될 立場에잇는 이때에 獨逸國軍의 增大에는 絶對反對의 立場에 잇스므로 英國政府가 單獨行動에 出한 일에 對하야 同樣으로 不滿의 뜻을 示하고 十九日 英佛伊三國政府間의 外交機關을 通하야 相當히 辛辣率直한 談話가 交換된 모양인데 以上의 談話에서 佛伊兩國政府는 獨逸政府今回의 行動에 依하야 事態가 全혀 一變한 點을 强調하고 伯林會商에 새로운 基礎를 與할 必要를 力說하야 會商以前에 三國協議를 遂할것을 主張하고 特히 佛國政府는

一、三國會商에는 外相 싸이먼氏自身이 出席할것

一、뭇솔리니首相의 參加를 得하기爲하야 會談地點을 北伊太利로 할것을 頑强히 要求하고 數次의 應酬가 잇섯는데 結局 이는 國際尙書스빗치外務次官參加下에 安全保障의 確立을 期하고저하는 佛國政府와 軍備均等權을 正面으로 要求하야 陸空軍의 充實을 主張하는 獨逸과는 벌서 一致할 可能性이 업스므로 닥처올 巴里會談은 벌서부터 多難을 豫想하게되엇다

英佛關係漸次惡化

라발佛外相

싸이먼英外相

獨逸에 對抗하야 佛國、空軍大擴張

【巴里二十日發聯合】獨逸政府의 再軍備宣言에 對하야 佛國政府는 卽時空軍大擴張을 하겟다는 旨를 도난將軍이 二十日夜如左히 言明하엿다

佛國政府는 今回空軍을 擴充하기로 決定하고 擴充費로 十六億法의 追加豫算을 二十一日議會에 提出하야 承認을 求할 方針이다 右豫算은 昨年十二月成立한 航空整備의 追加豫算으로 特히 爆擊機의 充實에 力點을 置하고잇다

歐洲問題에 關한 루大統領談

【電通華盛頓二十日發】루즈벨트大統領은 獨逸의 再軍備宣言을 中心으로하는 歐洲問題에 關하야 記者團에 對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歐洲問題로옷 軍備縮少問題에 關해서는 米國의 善隣友好政策이 今後 더욱 重大한 要素가 되기를 希望한다 軍縮의 相日條項等에 對해서는 주네브에서 이미 具體的審議가 進行되고 잇슴으로 비록 前途는 반듯이 悲觀할바 아니라고 信한다 그리고 米國政府가 獨逸에 對하야 抗議通告를 할 與否에 對하야는 지금 言明할바 아니다

伊政府滿期兵의 除隊延期

【電通二十一日發】伊太利政府는 歐洲의 情勢에 鑑하야 滿期兵의 除隊를 延期하고 四月一日부터 國內及植民地에 約五十萬에 達하는 二期兵을 配置하기로 決定하야 陸相바이스프로氏는 本日그 旨를 下院에서 聲明하엿다

英佛伊會談에 獨逸參加도 無關

英外相下院서 答辯

【電通倫敦二十一日發】싸이먼英外相은 二十一日午後 下院의 外交問題討議의 際에 議員의 質問에 對하야

一、英國은 事態를 重視시키고 歐洲平和工作을 圓滑케하기 爲하야 關係諸國에 派遣하기로

一、伯林、莫斯科、왈소等에서 會談을 遂한後 對佛伊會談이 開催될터인데 右에는 무솔리니伊首相도 參加할 意向이라고한다

一、그러나 英國으로서는 以上의 諸會議이 他의 如何한 國家를 目標로 行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모든사람들에게 잘 알려서 誤解를 生하지안토록하는것이 必要하다고 信한다 따라서 英佛伊會談에 獨逸을 參加식히는것은 不適當하지안타는 趣旨를 婉曲히 答辯하야 獨逸을

戰線動員兵力

獨逸은 七十三萬五千名이오 佛蘭西는 三十萬에 不過하다

佛、對獨方針發表

【電通巴里二十日發】프랑당佛首相은 對獨抗議發動과 聯盟提訴와의 手續을 마친後 二十日夜閣會에서 政府의 對獨方針을 如左히 發表하엿다

佛國政府는 獨逸이 一方的인 再軍備宣言에 依하야 베르사이유條約에 反하고 延하여서는 他의 安全保障諸規定에도 衝突를 與하려는데 反省을 要求하기 爲하야 對獨抗議를 發하고 또 聯盟에 提訴하고 理事會의 緊急召集을 要求하야 十日間以來에 特別理事會를 開會하도록 해달라고 希望하엿다 人的으로 獨逸은 戰線에 送할수잇는 兵力七十三萬五千을 有하고 이에 對하야 佛國은 겨우 三十萬을 有할뿐이다 佛國陸軍이 兵役을 二個年에 延長한것은 大戰의 影響으로 最近年年히 徵募壯丁의 數가 顯著히 不足하고잇는것을 補充하려고하는것 以外의 아모것도 아니다 何等軍擴을 意味하는것이 아니다 佛國은 恒常平和를 要求하고 安全의 保障을 念中에 두고 國際平和의 見地에서 恒常모든 可能한 條約을 自進하야 締結하려고 힘쓰고잇다 그러나 大戰의 責任者에게 對한 베르사이유條約의 文章을 改訂하려는 企圖에 對하야는 斷然同意할수업다

社會黨態度決定

白、擧國內閣實現?

【브랏셀二十日發聯合】社會黨의 母體인 勞働組合總評議會는 二十日緊急會議를 招集하야 現下의 政治的危機에 處할 態度를 協議하고 全會一致로써 如左히 決定하엿다

一、白耳義勞働組合總評議會는 斷乎히 全本位制支持를 表明한다

一、金本位制維持의 必要上 擧國一致內閣이 組織될 境遇에는 勞働組合總評議會는 欣然이에 參加하야 그 政策을 支持할것이다 勞働組合總評議會의 擧國一致로 下院에 七十三의 議席을 有한 第二黨인 社會黨의 態度가 鮮明하게 되엿스므로 擧國一致內閣의 實現을 보게되리라고 觀測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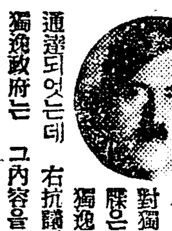
聯盟審判을 機會로

東歐로 카르노條約締結?

審判結果佛國勝訴는 無疑나 經濟對鎖는 可望都無

【주네브二十日發聯合】英國政府의 微溫的態度에 憤激한 佛國政府는 敢然聯盟理事會에 提訴하게된 結果 獨逸政府의 再軍備宣言은 주네브法廷에서 드듸어 最後的審判을 受하기로 되엇다 韓國가 滿洲事件及차코紛爭과는 相異하야 歐洲의 現狀을 轉覆시키는 根本問題인 것마큼 理事會로서도 곳까지 愼重한 態度에 出할것으로 보인다 理事會에는 獨逸代表가 오래前부터 出席하지안코 또 大勢는 곳까지 佛國에 有利하므로 獨逸政府가 完全히 缺席裁判으로 敗訴하리라고 觀測되고 佛國代表 퐁크루氏를 爲始하야 聯盟에서 으뜸가는 論客이라고 稱하는 체코슬로바키아代表 베넷슈氏等이 得意의 法理論으로 獨逸政府의 條約破棄를 論難하고 또 蘇聯代表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도 히틀러總統을 攻擊하는 一役을 擔當할것이라고 보임으로 假令波蘭代表 베크外相이 隣邦을 爲하야 辯護의 勞를 取한다 하더라도 英國代表 싸이먼外相이 攝政役이 될지라도 理事會席上에서 獨逸政府가 一敗塗地할것은 거의 旣定의 事實이다 그러나 假令如何한 決議案乃至勸告案을 採決하더라도 實行할수잇슬는지는 聯盟本來의 傳統으로보아 第十六條의 經濟封鎖까지 獨逸政府에 適用되리라고는 到底히 豫想할수업다 佛國政府當局은 곳까지 理事會의 召集을 機會로 安全保障條約의 確立을 期待하고잇다고 하므로 現實의 問題로서는 理事會를 機會로 若干 不干涉協約東歐로카르노協約과 空軍로카르노協約等의 成立을 促進하는것으로 落着될것이다

佛伊抗議를 獨政府一蹴



【伯林廿一日發聯合】二十日 佛國閣議에서 可決된 對獨抗議通牒은 二十一日 佛國大使 프랑소와 폰세氏를 經하야 獨逸政府에 通達되엇는데 右抗議에 接한 獨逸政府는 그 內容을 檢討한 結果 이것을 一蹴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一日 外相 노이라트氏의 回答이라고 明言한 右의 主旨의 回答을 發하엿다 佛國政府는 今回獨逸의 再軍備宣言에 對하야 여러가지 事情을 附하야 抗議해왓는데 佛國政府의 所說은 實際의 情勢를 考慮에 넣지 아니하엿다 따라서 獨逸政府로서는 實情에 即하지아니한 此種抗議는 拒絶하지 안흘수업다

【伯林二十一日發聯合】獨逸駐箚伊太利大使 세루티氏는 二十一日午後一時 獨逸外務省에 노이라트外相을 訪問하고 徵兵制度實施에 對한 伊太利政府의 抗議를 傳達하엿는데 이에 對하야 노이라트外相은 佛國에 對하야 한것과 同樣의 理由로서 卽時 이것을 一蹴하엿다 (寫眞은 히틀러總統)

英伊協議하야 獨佛關係調停

【倫敦二十日發聯合】獨逸政府의 今後의 平和工作의 交涉에서 除外하지아니하려는 英國의 方針을 明白히 하엿는데 이 態度야말로 佛國이 獨逸包圍政策을 具體化하려고 聯盟理事會를 通하야 獨逸에게 違法의 烙印을 押하려는 積極的方針을 採하고잇는데 比하야 칭신 微溫的이므로 英佛間의 對獨方針의 差違는 右言明에 依하야 더욱 顯著하게되어 消息通은 英佛間의 空氣惡化에 注目하고잇다

歐洲政局의 暗雲

大戰直前에 彷彿

佛陸相獨佛戰豫想

【電通巴里二十一日發】獨逸의 爆彈的宣言은 俄然歐洲政局에 一大波紋을 生하야 지금 歐洲는 再次大戰前과도 酷似한 險惡한 空氣에 싸여잇는데 佛國陸相 페탄氏는 二十一日下院陸軍委員會에서 如左히 演說하엿다

獨逸의 工場의 七割은 戰爭을 目的으로 動員되어잇다 萬若獨佛이 干戈를 交하게되면 蘇聯邦과 軍隊及軍需品으로서 佛國을 援助할것이다

伊國境近郊의 伊國人被襲擊

【電通羅馬二十日發】에디오피아國境近方(?)와 스케베리페 南方의 아가브레 近郊에 居住하는 伊國人을 突然素性이 分明하지 아니한 一團의 武裝兵이 襲擊하야 百頭의 駱駝를 奪取한 事件이 發生하엿다 右에 關하야 伊太利政府는 今日에 에디오피아政府에게 正式抗議를 提出하고 損害賠償을 要求할 權利를 留保한다는 旨를 宣言하엿다

話題解說

戰前獨逸領土

去十六日 獨逸이 『베르사이유』 條約第五編軍事條項의 廢棄를 宣言하야 平和工作에 한 歐洲政局에 一大衝動을 與한 『나치스』 獨逸은 다시한거름 나아가서 舊獨逸殖民地의 返還을 要求하리라고 消息通은 말하고 이잇다 獨逸이 世界大戰으로 말미아마 各國에 割讓한 領土를 調査해보면 大戰前의 獨逸은 四王國 六大公國、三自由市及一帝領을 가지고 잇섯는데 世界大戰後 『베르사이유』 條約에 依하야 『알사스・로-렌』(面積九千二百方粁)을 佛國에 割讓하고 西部國境의 大部分, 『포-젠』의 大部分上部 『실레시아』 (合面積二萬八千六百六十六方粁)는 波蘭에 上部 『실레시아』의 一部分을 『체코슬로바키아』에 『메멜地方』은 五大國의 保護下에 『단지히』自由市는 國際聯盟에 『오이펜』 『말메디』, 『모레스네』는 白耳義에 『(?)』 『쉴레스위크』는 丁抹에 割讓되엇다 그리고 海外領土로는 亞弗利加에 『카메룬』, 『토-고랜드』, 西南亞弗利加及東亞弗利加, 太平洋에서는 膠州灣租借地와 山東鐵道 또그沿岸에잇는 礦山全部를 日本에 割讓하엿고 太洋洲에잇서서는 『마리아나』 『마-샬』 『캐롤라인』 諸島는 日本에 『카이저 빌헬름』 등 사모아諸島의 一部는 英國에 『뉴-질랜드』 『솔로몬』 『비스막』 諸島는 『뉴-기니아』를 英帝國에 『나우루』 島는 英濠에 各各委任하게되엇다 그러고 오늘날 西歐州에잇서서 大部分은 佛國이 『카메룬』 『토-고랜드』는 佛英에 各各分割되엇는데 어느 植民地를 不問하고 現在 英佛間에서 이와가치 重大한 植民地가 論議될수잇슬는지는 매우 興味잇는 問題이다

再軍備宣言은 既存條約의 違反

獨政府의 再考促進

佛=伊=兩=國=提=出

抗=議=覺=書=內=容

【電通伯林廿一日發】駐獨佛國大使 프랑소와 폰세氏는 二十一日午前十一時 노이라트獨外相에게 手交한 抗議覺書內容은 大體如左하다

佛國은 一九三三年十二月平等權宣言과 兩立할수 업다는것이라는것을 通告치안흘수 업다

【電通伯林廿一日發】獨逸政府의 베르사이유條約軍事條項廢棄에 關한 伊國側의 抗議覺書 內容은 如左하다

伊國은 獨逸의 再軍備要求問題에 對하여는 一九三二年十二月의 英米佛獨伊五國間 軍縮會議에서 一般國際軍縮協定에 依하야 解決할것이라는 原則을 提議하엿다 故로 佛國으로서는 獨逸에게 如斯한 態度는 一九三二年의 軍備平等權宣言과 兩立할수업는것이라는것을 通告치안흘수업다

再軍備宣言을 中心으로 英佛伊三國政府의 共同戰線에는 벌서 틈이 생겨서 英佛兩國政府의 態度는 硬軟으로 相差되고잇는것은 旣報키 論한 事實이 되엇는데 이 軍大事情을 압두고 英國政府는 伊國政府와 折衝하야 獨佛兩國의 對立激化의 居中調停에 進出할 方針이라고 觀測되는데 이 見地에서 外相싸이먼氏는 伯林會商後 親히 歐洲政局의 危機打開策에 進出할 것으로 보인다 뭇솔리니首相訪問의 大役을 마틀이가 兩代表中누구가될는지는 아직 未決定이나 이는 國際尙書는 伯林에서 브릿셀에 向하야 安全保障工作에 斡旋할 豫定이므로 外相싸이먼氏가 뭇솔리니首相과의 會見에 進出할것으로 觀測되다

이것은 今回獨逸政府의 一方的行動에 依하야 存在할수업게되엇다 獨逸에 全面的으로 協調하는것은 伊國政府의 意思이지만 이것은 國際協定에 對한 一方的行動에 依하야 生하는 情勢를 旣成事實로 受諾할수업는것을 宣言하는 바이다

伊太利政府는 國際聯盟에 參加시켜서 獨逸에 對하야 獨立主權國으로서의 모든 權利義務를 完全히 附與하려고 努力하엿다 今後如何한 會議가 잇슬境遇에도 今回獨逸政府의 一方的行動에 依하야 生하는 情勢를 旣成事實로 受諾할수 업는것은 伊太利政府의 義務라고 痛感하는바이다

革命派蕩掃次 希臘議會解散

希臘政治의 前提?

【아덴스二十一日發聯合】希臘政府는 二十一日閣議의 結果 議會를 解散하고 總選擧에 依하야 革命派를 政界로부터 掃蕩하기로 決定하엿다

鈴木政友會總裁 國體決議案演說

贊成演說은 山本(悌)氏

【東京電話聯合】政友會에서 衆議院에 提出하기로된 國體明徵에 關한 決議案을 同黨으로서는 可及的 二十三日本會議에 上程하고 民、國兩派의 贊同을 得하야 衆議院의 全會一致의 決議로하려고하고잇다 그러고 政友會로서는 思想混沌한 現下의 狀態로보아 右決議案의 重大性에 鑑하야 이 取扱에 對해서는 特히 愼重하게 할것이라는 空氣가 濃厚함에 鑑하야 幹部는 愼重히 協議한 結果 理由說明에 特히 鈴木總裁自身이 出馬하야 名實共히 一黨의 代表者로서 黨의 所信을 宣明하기로되고 이 贊成演說은 天皇機關說排擊의 最强硬派의 頭目山本悌二郎氏가 出馬키로 二十一日夜決定하엿다

緊急上程

總裁自身登壇說明

【電通東京電話】政友會는 別項과 如히 國體에 關한 決議案을 衆議院에 提出하기로되어 今日各派에 交涉한 結果 明二十三日의 本會議에 緊急上程하고 鈴木總裁自身이 登壇하야 右決議案의 提出理由를 說明할터이다

重要法案協議할 朝鮮司法官會同

四月十二日부터 五日間

全朝鮮司法官會同은 來四月十二日부터 五日間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되는데 今般會同은 昨秋의 會同이 延期되엇든것으로 改正治安維持法實施에 伴한 思想關係刑餘者 保護監察에 關한것 辯護士規則改正에 對한 司法監督者의 意見及 思想事件의 檢察事務와 裁判等에 關한 具體的 協議를 비롯하야 少年法實施及少年審判所 特設에 關한 協議其他 重要事項이 多數이니만치 今般會同의 結果는 非常히 注目되는바이다

아州下院閉會로 排日土地法案不成功

【피닉스廿一日發聯合】아리조나州下院은 廿一日午後九時에 閉會되어 外人土地法案은 드듸어 粉碎되엇다

八面鋒

◇ 養正의 孫基禎君, 『마라손』에 世界新記錄을 지엇다。

◇ 養正의 孫基禎이 朝鮮의 孫基禎으로, 朝鮮의 孫基禎이 世界의 孫基禎으로。

◇ 朝鮮男兒의 意氣가 봄날과가치 明朗하고 봄풀과가치 자라기만 기리기리 祝福할뿐。

◇ 相當한 身分과 相當한 職業을 가진 視察者의 旅行團까지 『渡航證明』이 업다고 拒絶。

◇ 下關의 『下官』의 한일이니 上官은 모를지 모르는일이나, 이따위 下手(헤다)에는 下手할 餘地도 업는일。

◇ 바다에 鐵條網을 친은 愚策中의 愚策, 潮流에 거슬림은 매計中의 매計임을 아는이가 업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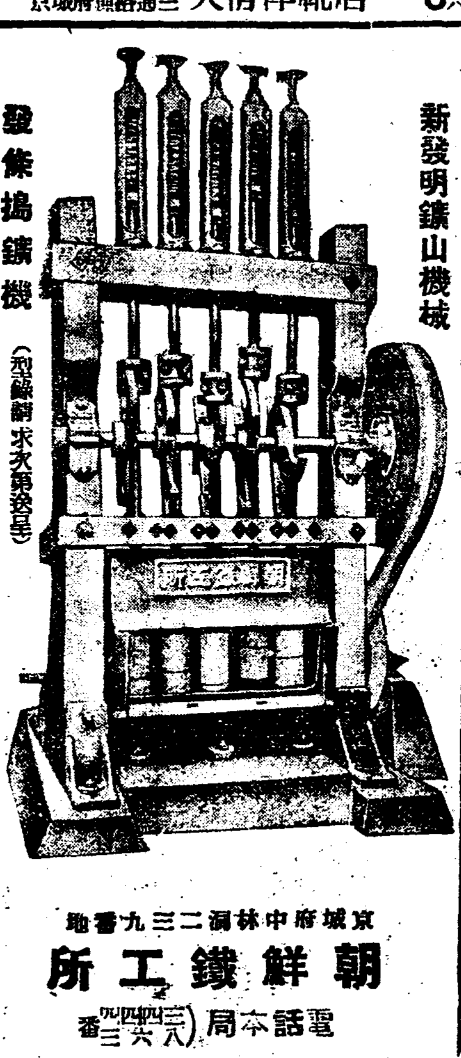
月刊野談 第六號出來!!!
尹白南先生 主幹 精力을 다해 편찬하야 곱게 꾸며 냇소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番地
合名會社 癸酉社
電話本局 二三六九番 振替京城 二八二二番
◎販賣 全鮮各書店 及 各書店

오케-레코-드 OKEH 四月新譜
二〇一〇 獨唱 오! 나의 太陽 李寅善
獨唱 슈벨트小夜樂 李寅善
二〇一二 獨唱 먼싼타루치아 李寅善
獨唱 싼타루치아 李寅善
一二七四 新民謠 明沙十里 金蓮月
流行歌 갈매기신세 高福壽
一二七六 悲劇 花柳長恨 申不出 申銀鳳 車紅女
一二七〇 春香傳 五里亭離別 上下 吳翡翠
一二六九 伽倻琴 芳兒打鈴 吳太石
竝唱 楊山道
漢江水
景福宮
날좀보소
닐늬리아
一二七一 京畿俗謠 才談노래가락 吳大盤
才談중타령

大衆的 愛用御禮景品付投賣急告 金洋 主宰
精確時間正確 西瑞製特
御注文 前金ノ方ハ送料本社負擔(代金引換ハ送料四十錢) 注文高三割以上ノ方ハ送料半額 但代金引換希望ノ方ハ十錢切手封入申込下サイ 投賣中事務多忙ニ付型錄請求謝絶
東京市牛込區早稻田町四六 振替口座東京六二七八一番 合名會社 石田商會
昭和十年五月末日迄 (東京新聞社ノ立會嚴密ニ致シマス) 昭和十年六月中旬 中央日報紙上ニテ抽籤發表
景品 一等 大金懷中高級品三名 二等 眞珠入金指輪三十名 三等 高級蓄音機五十名 四等 大人用高級自轉車百五十名 五等 高級萬年筆 等外 懷中ノ方ニハクサリ 腕ノ方ニハ腕皮洩レ無ク進呈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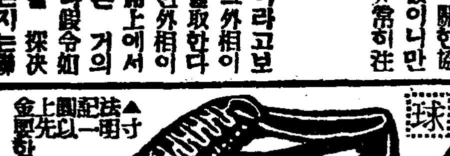
문동병완치약 레푸도-루 發見
문둥병은 낫는다
가중 청산고 에는 옴히 벽고
總販賣元 三省堂新藥研究所 京城鍾路二丁目 振替京城六四四六番 電話光化門八一一一番

男女學生募集 南大門自動車學校 改訂學則要二錢送
◆三四年을보내며 ◆로마지하나? ◆現下趨勢에應하야 江湖諸賢께告하나니 全世界가雄飛的으로 躍進하는 陸上의雄이며 交通界의王인自動車界에 ... 滿洲의 分校를 新設함
第一實習場 (裁判所前) 第二實習場 (大漢門前) 市外各地
校舍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電話本局八六七番 振替京城二〇五六番



新發明鑛山機械 發條搗鑛機 (利鑛嗣求永第號)
京城府中林洞二三九番地 朝鮮鐵工所 電話本局 (三)四八六番

仁丹 仁丹 仁丹 仁丹 仁丹 仁丹 仁丹 仁丹
躍動하는健康은 意外에 가까이잇다 君의手中에
諸國中의將兵이 今年은 아마도지 健康하와
평상한 基礎健康法 그는 唯一한
活動이 흔들 해지는일을 보고심은 는, 곳
살물 짜게 하고、血色을 조케한 사람에
海外에 서자는 健康美에 는、늘 엿지 혼들



恩給 立替 利金 政府 城 鄭商會
말더듬이 一週間 矯正 한 訥言矯正 案內書 無料送呈 京城府鍾路二丁目四〇ノ三 訥言矯正院

▲寸法記入 一圓以上先金 御申込
紳士靴 四圓八十錢 紳士長靴 七圓 ... 大信洋靴店 京城府黃金町三丁目

移住同胞作畓計畫에 滿洲人反對猛烈

撫順縣下土地紛糾問題漸次險惡化

大移民計畫에 重大暗影

동부의대어떤 계획의 실시를앞두고만주에 이주하는조선인의 토지문제또는영농(營農)상의여러가지문제에대한 만주인의 태도는비상히주목되는바 최근에 토지문제를중심으로 조선인과 만주인간의 분쟁이 이러나게되엇다

모범적논으로 전만주에 일홈이놉흔무순(撫順)현하의조선농민의논은조경괴를 압두고미개간지의 작답(作畓)문제로만주인농민의반대를사게되야조선인과만주인농민간의분쟁은 갈사록표면화하야 금후만주에잇서서 조선농민의논개간사업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엿다한다

즉무순현제삼구 하하달(下哈達)에거주하는 조선농민은 새로이주하여온사람의 개간지로서 제사구현하(縣河)우안(右岸)덕점(德店)부락의삼백오십오정보의작답계획을 세우고 만주인지주와토지차인계약도 작년말에끗나 금년봄부터 이것의개간에 착수하려하자 종래이지방은 전작(田作)지로서 만주인소작인의 손에의하야 개간된것이현재 삼백오십호면종래의 만주인소작인 삼천육백명의생활을위협하는것이라하야만주인은 조선농민의 이주에반대하야그저지운동을 하게되고 일방조선농민은 그독권에의하야 개간사업에 착수하게되엇다 그러데 만주인농민은 현공서(縣公署)에맹렬한운동을 하는일방 조선인에 대한 감정이점차악화하고 잇서 사태는매우 우려할상태라고한다 이것은로작민과 이주민과의 밀접한알륵인은 루래업스나만주의 대이민계획과 룰밀릿드려미는자유이민의 대책을 압두고만주인의조선인에대한토지문제의분규는재만조선인에일대암영(暗影)을던지는것으로 비상히주목된다

阿峴里嬰兒屍 殺害犯手配

親母崔氏로判明하고

지난오일밤 일곱시쯤 부외아현리(阿峴里)삼백팔십번지 리엽덕(李葉德)의 집바갓 뒷간에서발견된 어린아이시체는 제국대학병원에서 해부해본결과 타살로판명되엇스므로 그동안 관할룡산경찰서(龍山署)에서는 그범인을 각처로수사중이엇섯는데 이십일일에 이르러 그범인은 황해도연백군(延白郡)에본적을둔 최씨(崔氏)라는 삼십이세된 젊은녀자인것으로 알게되는동시에 그는 지난달이십삼일 오후열시에 제국대학병원시료부(施療部)에 입원하야 그날밤열한시에 계집아이를 나하서 그이튼날 이십사일에퇴원한사실까지 알게되엇스므로 그경찰서에서는 이사실을 비밀에부치고 이십이일아츰에 부내 각경찰서에 일제히 범인을 체포해달라는지명수배(搜査手配)를하엿다 그녀자가 그와가튼 의착한범행을하게된 리면에는 자못복잡한사정이숨어잇섯든것인듯하다한다

列車에 少女轢死

이십일일 오전열한시십분경 경성으로부터 북개(北漢)로가는 제오백십삼렬차가 부외 한지면두모리(漢芝面豆毛里)일백십삼번지압 선로에 다달엇슬때에 선로안에어린아이하나가 서서잇는것을 발견하고 급히정거하엿스나 밋지못하고 그어린아이는 무참히도륙사되엿는데 조사한결과 그에는부외두모리 일백삼십칠번지 김장근(金長根)의 셋재딸선이(善伊)(六)로써 동리아해들과 서로군치에서 놀다가 밋처 피하지못하고 전긔와가려 참사된 것으로 판명되엿다

「鴻來」차저주

부내 원동(苑洞)이백삼십이번지 조동겸(趙東謙)씨의셋재아들홍구(鴻求)라는 세살먹은어린아이는 이십일일오후네시경에 그집근처에서 놀다가 행방불명이되야 소관 종로경찰서에수색원을 제출하엿는데 전긔홍구의입은옷은 색동저고리에 윤두령이를입고 누른고무신을 신엇다고하며 누구든지 먼저차저주는이에게는 사례금십원을 준다고한다

싸우다매맛고 자는사람打殺

경기도 룡인군원삼면고당리(高塘里)랑부권영히(權榮[illegible])는지난십오일밤을 예제사에 자든동리구선회(具善會)의집에서 그집에잇는 머슴 권래용(權泰用)와 싸호다가 어더마즌것을분하게여기고 어둔틈을타서 권래용이가자는방에뛰어드러가큰몽둥이로그를함부로따려서 이튼날 오후에그는 그만이로인하야 절명이되엿다고 상해치사죄로 취조중이라한다

託鉢僧慘殺犯被逮

犯人은金大寺少年僧侶洪斗杓(一六)

公州署에서取調中

지난십구일에 충남공주군 우성면귀산리(公州郡牛城面貴山里)에서 동냥다니는 어린중을 죽이고어데로 도망한범인 그곳사곡면계실리 김대사(寺谷面桂室里金大寺)의중 홍두표(洪斗杓)(一六)의행방을엄탐중이든 공주경찰서에서는 이십일 저녁때에 그를드듸여 체포하엿다 한다

文明琦機命名式

경북영덕군(盈德郡)문명기(文明琦)씨의 헌납비행기 명명식은 이십일일오전열한시부터 여의도 비행장에서 성대히 거행하엿다

朴氏博士論文提出

동경제국대학의학부 소아과(東大醫學部小兒科)와 천엽의과대학세균학교실(千葉醫大細菌學敎室)에서 삼년동안의학을 연구하든바 박용래(朴容來)씨는 장내세균(腸內細菌)에대한연구와 조선장유에대한 세균학적연구를완성하야 학위론문을 제출하고 일전경성에돌아왓는데 종로일정목삼번지 광중의원(廣重醫院)에서 다시개업하리라한다

春窮이나흔 "黑奴"

農村處女一隊를誘引上京

誘引魔怪紳士旅館에潛伏 一齊檢索中에被捉

종로서에서는 만주국황제의 어도일을압두고 이십이일오전 다섯시부터서원을 총동원을시켜서 관내의일제검색을 행햇는데우연히인사동(仁寺洞)일백삼번지 개성려관(開城旅館)에서 열칠팔세 가량의소녀를 네명이나 다리고잇는괴상한신사를 발견하고 수상히생각하고 그서까지동행하고 취조하엿드니 의외에도 그는 춘궁에 시달리는 삼남의 농촌을 무대로 날뛰는 부녀유괴단의 일명인 것이 란로 되엿다 그는 달성군(達城郡)에사는 류근석(柳近奭)(四[illegible])인데 방금전기려관에 다리고와잇는 소녀들은모다 대구(大邱)부근의 농촌에사는 박수영(朴壽永)(一七)조수말동(趙壽末童)(一七) 리기희(李奇姬)(一七) 석근조(石根祚)(一七)의 네처녀로서 그들의 부모를감쪽가치속여서 서울로다리고와서 이백원으로부터 사백원식에 팔려고 시내의 각인사소개소에 교섭중이엿다고한다 그는이번뿐아니라작년수해이래벌서여러번재지와서울사히를왕래하면서 십여명의부녀를 유인하야팔어먹은혐의가 잇스며 또한류근석이외에도 공범자가 여러명이잇서서 그서에서는 방금각방으로계속활동중이다

劇藥을菓子로 前室子를毒殺

慶北迎日에鬼繼母

【大邱支局電話】 경북영일군오천면세계리(迎日郡烏川面世界里)박인용(朴仁用)의안해 방학련(方學連)(三[illegible])은약삼년전에 박인용에게로시집을와서 이래 동거하든중그의전실아들 영효(永孝)(四)를항상미워하야 학대하든끄테 지난일월십팔일정오경에『나프다린』세극구람』가량을 과자라고속여서 그에게먹이엇든결과 일렵십시일오전에 영효는앞다가 드듸여절명된것이 발로되야방학련은 방금영일 경찰서에인치취조를 밧는중이라한다

貴金屬專門大賊

이십이일아츰에 시내 종로삼정목부근을 배회하는 수상한사나히를순찰하든 종로서원이 몸뒤저보앗드니 백금다이야놓은속의 귀금속을 만히가지고잇스므로 그서까지 다리고가서 엄중이취조한결과 그는 또박게도 지난 겨울부터 경부선열차와 시내의 전차속에서손님의 귀금속장식품만전문으로 훔치고댕기든 유명한소매치기 임실군임실면갈경리(任實郡任實面甘城里)출생의전과이범서병조(徐丙祚)이것을자백하엿다고 한다

惡疫에包圍된慶山郡

猩紅熱麻疹患者四千名

五個面을通하야全郡的으로席捲中 死亡者만百七十餘名多數

【大邱】 경북경산군(慶山郡)내에는마진(痲疹)과성홍열(猩紅熱)이대창궐하야자인면(慈仁面)진량면(珍良面) 하양면(河陽面) 안심면(安心面)와촌면(瓦村面)등오개면에 빠처서 발병환자가 사천여명에달하얏는데 그환자는 마진에는대부분이어린아이들이요그외성홍열에는 십오세이상의 큰사람까지 걸리게되여 만흔생명을 빼앗길뿐아니라 이미마진을 알코나흔어린애들이다시성홍열에재차걸리게되여 전긔오면을합한사망자 만이실로백칠십여명이나되는데그중하양면의사망자 오십칠명이수위를차지하고잇다고한다

市內各學校合格者

徽新學校

(志願者五二二名合格者一七三名)

朴明玉 李錫鎭 金文行 朴順吉 馬湘玉 尹赫憲 崔鍾洙 金鍾華 安尙柏 安正善 金政得 柳植茂 朴秉一 孫正浩 金泳龍 石熙正 李正坤 具然成 申攸浹 李學潤 朱宇經 趙萬吉 金喜年 金秉元 金基煥 金東鎭 具然哲 趙炳準 尹炳碩 金錫寶 崔燮成 盧英七 鄭德洙 鄭澤洙 鄭吉洙 李宗濬 金鍾玟 柳鳳烈 車和鎭 崔重錫 安命根 李商[illegible] 高炳[illegible] 金[illegible] 李淳[illegible] 李敏[illegible] 朴台元 田浴[illegible] 張日煥 鄭鎭[illegible] 朴貞三 池[illegible] 崔仁浩 鄭雨榮 朴俊[illegible] 李[illegible] 盧[illegible] 金元榮 林[illegible] 金[illegible] 李日英 金鎔一 金云燮 金致[illegible] 高[illegible] 洪璟淳 崔周[illegible] 李[illegible] 金潤杰 金昌[illegible] 車憲三 安鳳珍 金[illegible] 梁[illegible] 柳性照 金判[illegible] 金浩鳳 金鍾河 張晟煥 韓[illegible] 鄭春澤 洪鍾勳 洪承吉 金炳勳 趙泰[illegible] 金聚[illegible] 金祥基 朴淸烈 權大相 柳志道 文學[illegible] 孔益哲 鄭鍾永 朴定孝 吳壽南 金洙鎬 尹紀[illegible] 李勝雨 金光洙 洪淳[illegible] 朴昇[illegible] 梁昌[illegible] 金成湖 金仁[illegible] 李[illegible] 金相烈 康漢宗 康弘模 李[illegible] 金正燮 金均玉 金均欽 白二甲 鄭潤東 金崔烈 尹鼎燮 金鍾範 曺炳學 宋英駿 趙炳珍 朴[illegible] 金炳年 鄭[illegible] 白[illegible] 張[illegible] 朴[illegible] 金[illegible] 朴[illegible] 朴[illegible] 李[illegible] 丁[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李[illegible] 李[illegible] 金[illegible] 崔[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徐[illegible] 沈[illegible] 高昌[illegible] 曹[illegible] 尹[illegible] 洪[illegible] 宋[illegible] 元命吉 尹[illegible] 洪[illegible] 洪[illegible] 張[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李[illegible] 朴[illegible] 李[illegible] 吳[illegible] 李[illegible] 李[illegible] 鄭[illegible] 朴[illegible] 金[illegible] 金二[illegible] 金[illegible] 崔[illegible] 邊[illegible] 崔[illegible] 鄭[illegible] 金[illegible] 金[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寬甸縣土兵團 十一名을拉去

富豪家를略奪하고

【新義州】 지난십구일오전열두시쯤 벽동군하우동대안(碧潼郡下隆對岸)인 관전현석계자(寬甸縣石桂子)에는동연흑십여명의 공산군이출현하여 동지의부호 한호를략탈한후 동민십일명을 붓드러가지고 벽지로 유유도주하얏다고한다

天氣豫報

晴後曇

槪況 高氣壓은揚子江의流域으로부터朝鮮을經하야 東海에뻐처 大되고잇스나 그勢는弱하고 滿洲의北方도 氣壓이高다 北朝鮮은흐리고其他는日氣가조와 一般으로靜穩하다 氣溫은釜山의三度와中江鎭의零下六度와의사이에잇서 昨朝보다三度內外高하엿다 明日은北風이불고다소흐리다

昨日最高 九度一
最低 三度一
今日最低零下 二度九
今日正午 六度六

◇京永마라손競走! 上은歸路漢江橋를通過하는 一着의李君、下는入賞者…右로부터 李泰遇、吳東祐、安三鎭、李鋼錄、閔和植、黃慈覃諸君

養正孫君의超人的偉績

全日本마라손大會서 世界最高 參考記錄作成

二時間二十六分十四秒…… 從來記錄五分餘突破

【電通二十一日東京電話】 우리의자랑마라손競技의快消息! 二十一日正午 東京神宮競技場을出發歸着點으로擧行한 全日本마라손驛盟主催의 第一回 巡遊道路코ー스·풀·마라손大會에서 斯界의驍將養正高普二年生 孫基禎(二三)君이 二時間二十六分十四秒의 世界參考新記錄으로優勝하엿다

◇記者註 이번에 孫基禎君이 作成한二時間二十六分十四秒는 從來의世界最高記錄인 一九三二年 第十回世界오림픽에서亞爾然丁의 『자바라』選手가 作成한二時間三十一分三十六秒에 比하야實로五分二十二秒를 短縮한超人的大記錄이다 그러나 마라손이란正規의二十六哩四分之一의코ー스測定如何, 道路의屈曲, 高低, 氣候의콘디숀等의 相違로記錄上으로는엄청난差異를내이는것이며 더욱이번의走路는 日本에서 처음으로測定實施한 所謂世界 올림픽마라손 코ー스에 準한 循環路에서 最初로열린마라손競走임으로 從來의 아모런記錄도基準삼을수업슴이遺憾이다 그리고이記錄은世界最高記錄으로公認되지못할것이며 다만明年으로迫頭한第十一回世界올림픽에서 列國의强豪를과꺽지어作成하는 그記錄이야말로世界記錄으로公認될것이다 올림피아ー드와가장큰因緣을가진마라손에우리選手들의躍進은痛快事이며때로非公式으로나마 世界記錄을突破한것은慶賀할일이다 (寫眞은 孫基禎君)

京永間마라손

二高李君優勝

二着은平南順安의吳君

京永街途에 무르녹는水色봄비를헤염치면서 躍進마라손의新記錄의樹立을目標로달리는 三十一名의 鐵脚은出發前十五마일의『아스팔트』 우헤明朗한『스텝』을印칠新春 쓰포ー츠界必擧! 二十一日午後四時。高麗陸上競技協會主催의第五回 京城…永登浦間往復十五마일 마라손競走는 待望의幕을여럿다 定刻前에會長 兪億兼氏의開會辭와 昨年度 優勝者柳長春君의 優勝旗返還이 잇슨다음 第二高普의 李泰遇君이 選手一同을 代表하야 宣誓가잇고 審判長朱興根氏로부터 注意事項을말한後 午後四時正刻에 出發 斷然光化門네거리를 떠나서 一路所定의코ー스를달려서衝天하는意氣는 新裝한『모던』街道에불타올랏다 이리하야沿道에넘친觀衆과從走하는自轉車又는 自動車援護隊에싸이어 力走 또力走하야드디여 斯界의新進勇士인京城第二高普의 李泰遇君이 一時間二十二分四十三秒의 初記錄을作成코 優勝하엿다 이記錄은昨年記錄一時間二十分三十四秒(柳長春君)보다느즈나 이는코ー스의變動으로記錄일것이다 그리고第二着은 平南順安義明校選手 吳東祐君이 約百米뒤로 드러오니 一、二着을모다無名의新進들로서獨占하고야마럿다 出場選手三十一名中에서 二十名이골에드러오고途中十一名은 棄權하엿다 同五時四十分에會長兪億兼氏로부터 入賞選手에게優勝旗와賞品을授與하니 第五回京永마라손大會는이로써 圓滿한盛況裡에閉幕되엇다

【往復路戰況】 三十一名이 一齊히스타ー트하야 龍山三角地까지에는 十二分五〇秒로 安三鎭、李泰遇、李安淳三君이 一團이되며 先頭를달리고約十米뒤에는 金明山、閔和植、吳東祐의順으로通過하야 漢江橋에이를재李泰遇君力走하야二十一分으로斷然先頭에나아가니三十米뒤로安三鎭、吳東祐、金明山、李鋼錄、閔和植의順으로追擊하고잇섯다 鷺梁津驛前을지날때에는 李泰遇君依然先頭를달리며吳東祐君이 安三鎭君을제치고 先頭를向하야肉迫하고잇섯다、이리하야歸還點인 永登浦驛前의着順은李泰遇(四〇分一八秒)吳東祐(四一分十秒)安三鎭、李鋼錄、四君이前後하야歸路에오르니 鷺梁津驛에이르러 先頭의李君 好調로快走하야 吳君과의差 約五百米를내이고 二百米뒤에는安君이 追從하고잇드니第四位의李鋼錄俄然스피ー드를내어 漢江橋까지에는 벌서安君과어개를가리하야 激烈한接戰을展開하엿다 이때에先頭를 달리는李君은 一路決勝點을向하야突進하고 二位의吳君은 先頭를빼앗고저 悲壯히追擊하엿스나 決勝點까지에는 約百米差로李君이 『테ー프』를끈엇다 接戰을演하든安、李兩君의三位爭奪戰은 安君力走하야 三着으로入賞하엿다 이날의着順은다음과갓다

到着順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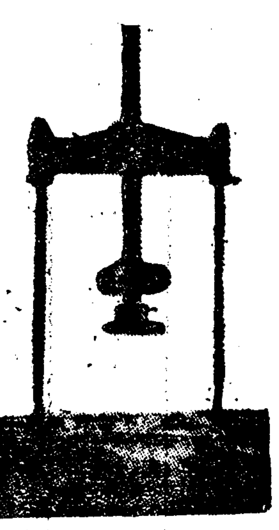
▲1李泰遇(二高)一時間二二分四三秒 ▲2吳東祐(順安)一時間二三分[illegible]秒 ▲3安三鎭(往十)一時間[illegible] ▲4李鋼錄(黑馬)一時間[illegible] ▲5閔和植(往十)一時間[illegible] ▲6黃慈覃(春川)一時間[illegible] ▲7申東植(大田)一時間[illegible] ▲8邊天幸(遞信)一時間三[illegible]秒 ▲9朴承濟(開城)一時間三[illegible]秒 ▲10李雲鶴(開城)一時間三[illegible]秒 ▲11金道植(二高)▲12白連[illegible](開城)▲13李德寶(京城)▲14金聖銳(往十里)▲15洪淳元(高陽)▲16金世彰(江華)▲17方壽奉(白馬)▲18朴龍人(永登浦)▲19方鎭鳳(江華)▲20金鎭龜(京城)

먹으면五分에下熱함

竹村의製 돈뿌구

藥價廿錢、卅錢、五十錢、一円
大阪東區南久太郎町二丁目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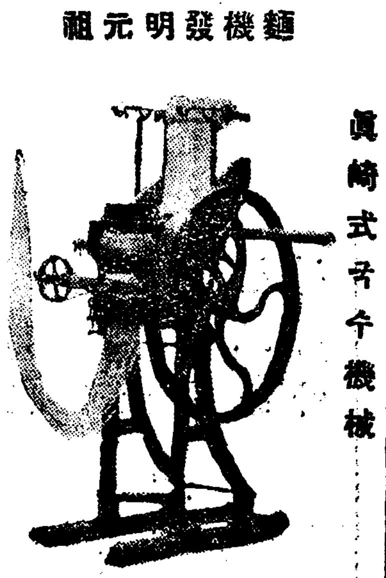
製油機



特許諸機械製作
登錄商標 朝鮮大田本町二丁目
眞崎大田機械工場
電話長 二六二番
振替京城 六二六七

(特約店募集)

麵機發明元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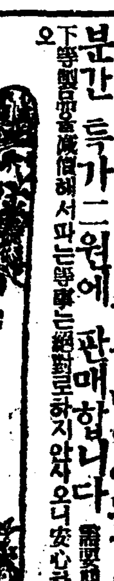


(御照會次第カタログ進呈)

眞崎式국수機械

用力動・用力人
合잇各號甲乙丙丁

二圓밧는금비녀



순금비과 꼭갓사오며 재료의 선택과 공의 정밀이 四원은 밧어야될것이나 당분간 특가二원에 판매합니다

下等製品을廉價販賣하는業者는絶對로하지안사오니安心하시고사시오 (需要期를利用해서)

비녀二圓、귀개、말뚝잠、십자외반지 各二十錢、아회점、연봉、녀자반지、남자반지、수국첨、화잠、고리、쪽잠、쪽진주반지、진주잠、진주、각、남녀반지 각八十錢、기타단조、다용、장연봉 各一圓其他【送金은振替京城一一七四三】

京城府西大門外阿峴

發賣元 三信金銀部

(特約店募集)

남자의 벼자물위하야 覺念禪師가 오섯다

三月廿六日早日

元朝鮮總督府醫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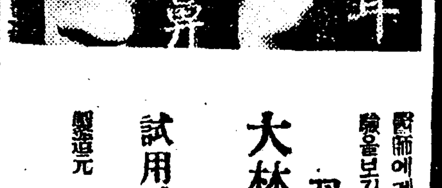
開業廣告

咸南永興

命濟醫院

院長 張命濬
產婆 郭玉順

耳鼻病即效藥新發賣



耳 鼻

醫師에게治療를밧기前에 나의은藥으로効驗을보지못한때

꼭 最新療法인 大林耳專門藥과 鼻專門藥을 試用하십소서

定價 五十錢 三十錢
(全國各藥房에서販賣)

製造元 東京市小石川區小日向水道町
大林製劑部

筆生

盛文社

新改良型의獨特點 除草機界最高權威

宮澤式中耕除草機

大量製作 廉價提供 實質主義

製作發賣元 宮澤農具製作所
兵庫縣加古郡天滿村
振替大阪八六六九一

實踐簿記專修學院

産婆看護婦 志願者

東京市牛込區

日本產婆看護婦學會

婦人病仙藥

부인병으로 아이못낫는사람

리경보태환한제로 날수잇다

만약효력이업스면약가를반환하야 드립니다

리경보태환 理經保胎丸

리경보태환을복용하면 엇더한부인병이라도 고처지고 아이를 나흐며 …

세상에는 부부의금슬이 조코 또몸에병도업시 건강한부인으로도 아이를낫지못하는 부인이 만흔 것은 참말 가엽슨일이올시다

약가는단지 한제에오원、파는곳은 경성부종로이정목보인당약방

藥價一劑五圓

京城府鍾路二丁目

製造發賣元 普仁堂藥房

振替口座京城一一一六番
電話光化門一八一六番

春風 (35)

夕影 作、畵

영화는 영옥이와갓치안저 분-이나서 얼골이 화끈하엿다 자긔와 어떠한관계이라도잇든 사람을 영옥이가 가로찬것은아니나 그는 무엇인지 크게 때목을당한듯한 분노가 치민것이다 영옥은 장차이 대자의말이어떠케 나아올가하고 기다렷스나 영화의 술책이눕하진듯한 그의가슴을보니 일종 그의게 흥미를가지면서도 그와 잘못수작을붓칫다보다 하엿다

『영옥씨께서는 원래 댁이 서울이신가요』

『네-』

『저도 서울이예요 그야 원고향은 딴곳이지만 서울서나고 서울서자랏스니 서울이지요』

『네-말슴을듯고 나도 그러케아럿서요』

그러한 평범한말이 오고가고한뒤에 영화는 정말알고십흔것을때보랴고 목소리를 가다드머서입을여럿다

『실례말슴이지만 앗가 절에가치 나오신분은 누구신가요 만히뵈온듯한데요 참 점잔흐시드군요』

알고도못는 영화의 마음속을 기피알수는업스나 그수작이 조금엉뚱한데에 대답을피하랴하엿지만 일종의 우월감에서인지용긔를내엿다

『바태식씨라는분이예요』

『네 바태식씨요 이러케 또말씀하면 참실례인데 그분과 어떠케되서요! 두분얼골이 어떤지비슷하신데 잇는듯해서 남매간이신가 햇지요』

영옥은 무어라 대답할지몰랏다 그러나 영화의 넘겨짚는말임은 그도 아라차렷슴으로그의게 속으려질수는 업섯다

『저와 어렷슬때부터 친한이예요 그건 왜 무르서요』

영옥이가 뒤끗을 밧짝 재첫스나 영화는 뒤로 물러나지 안는다

『그럼 어렷슬때부터 친하시다면 옛날에는 속끕동무요 지금은 애인이시겟군요 어저면 그러케 행복하서요 참부럽슴니다』

영옥은 그를 힐금처다보고는서그픈우숨을우스며 고개를숙인다

『영옥씨는 어느학교를맛치섯나요』

『학교를맛친대는업서요 너무캐시는군요 퍽심문밧는것가태이』

『네-그러면 그거제가너무죄송합니다 저가튼녀자가 그런것까지엿주어보아서……대은어듸신가요 좃차자가뵈옵게요 건괜찬켓지요』

『편찬치요 그런데 집이누추해서요 ××동××번지예요』

『네-- 그래서요 저의집과파히멀지안튼요 자- 또거러보십가요』

영화는 자긔의할바를다-한드시이러섯다

『네-- 그런데저는 곳나아가야하겟서요』

『그럼 저도나가지요 혼자는심심해요』

영화는혼자상그레- 우섯다

영옥이가 창경원을나아가서전차를타자 영화도탓다 전차에서 영옥이가나리자 영화도 따라서나리엿다

영옥은 영화가 줄기차게 따라오는데에 진땀이 날지경이나 그럿타고 피할수도업섯다

--저만하면 기생으로써 할만하겟다하엿다 영화는 영옥이와시선이마조치면 아모의미가 업는듯 그러나 의미가잇스면 기픈듯한우숨을우섯다

-웃고 사랏죽일기생이로군-

영옥은 태식이도 저기생과 여러번맛나면 저우숨에 껄리자나안흘가하야 영화가 미운생각도드럿다 그래서 그가우스면 못본체하고서 얼골을 돌리엿다

영옥이가 라원동을 들어서서 인사동으로통하는 어구에서 영화는 영옥이에게 인사를하엿다

『안녕히가서요 오늘실례만헛습니다 저때문에 구찬으셧슬텐데요』

그는 또웃는다

『천만에요 자-그럼 또뵈옵겟서요』

영옥은 홱도라서서 경운동쪽으로올라간다 영화는 영옥이의뒷모양을바라보고섯다가 ××관이란료리집으로 권번에전화를걸려고 드러갓다

집에드러와 자리에누은 영옥은 창경원행이 불길한 미래에의 첫길가태서 후회가되엿다

영화가 태식과 자긔의 관계에대해서 그러케 대담하게 (기생이지만) 캐는데는 태식과의어느정도까지의 밀접한 사히인것도갓고 점에서 자긔가 그기생에대한 이야기를 꺼낼때에 태식이가 어름오름하는것을 보아서도 태식이도 그를과히 실혀하는모양은 아닌듯하니 그야 사나희가 혹시 오입삼어 기생집을입도할수잇스나 그기생의 태도라든지 말씨라든지 그빗나는눈초리를 보드래도 꿍부낫치나하든녀자 가튼으로 태식의심줄(心쪽)의 어느줄하나쯤은넉넉히 켱겨불녀자가탯다

라듸오

三月廿二日(金曜)

◇午後六時 하-모니카合奏와獨奏 따윈·하-니카·안삼블 獨奏· 崔英植 指揮· 金波[illegible]

◇同六時四五分 라듸오學校 봄과少年 (二) 李亨雨

◇同七時三〇分 紀念講演 라듸오記念週間을마지하고 朝鮮放送協會理事 朴榮喆

◇同八時 流行歌레코-드演奏

◇同八時十分(東)管絃樂(合唱付) 日比谷公會堂으로부터中繼—交響曲 第九番 D短調合唱付 베-토-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마·논·트롭포 운포코·마에스토-조 獨唱 쏘프라노 澤崎定子 알토 熊澤[illegible]子 테너 奧田良三 第二樂章 스켈쏘 베-스 矢田部勁吉 第三樂章 아다지오 모루토 에간타-빌레 合唱 自由學園合唱團 東京高等音樂學院 合唱團 東京合唱團 第四樂章 終曲(合唱付) 合唱指揮 山本直忠 明本京靜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近衛秀麿

三月廿三日(土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가)南薰殿 (나)가자어서가 二、唱劇調 獄中歌 曹弄仙 鼓手丁元燮

◇同二時 家庭講座 家庭에서만들기쉬운中國料理(三) 鄭順媛

◇同五時三〇分 入試合格者發表 (中東學校)

◇同六時 兒童劇 金은밥 全二景 配役 乙順……金福南 乙順父……白樂榮 乙順母……成俊德 敬淑……金貞順 敬淑父(三文)……鄭英九 敬淑母(金氏)……鄭貞熙 指揮 成俊德

◇同六時二〇分 兒童週間新聞

◇同六時三〇分 라듸오學校 봄과少年 (三) 李亨雨

◇同七時三〇分 講話 蠶絲業斷想 權鎬忠

◇同八時 西道歌謠 一、京西巨里 二、난봉가 三、방아다령 四、梁山道 白牧丹 柳開東

◇同八時二〇分 連續라듸오·드라마 (一) 바다의夫人 全四景 헨릭·입센原作 (配役) 왕겔(村醫師)……薛貞植 에리다(왕겔의後妻)……裵恩受 브레데(왕겔前妻의딸)……金炳斗 힐데(同둘재딸)……羅喜衍 아른호름(家庭敎師)……韓相稷 림스트란드(彫刻家)……朴東根 바레스테드(畵家)……姜堯受 外國人(에리다의옛愛人)……張保羅 其他群衆若干名 延專文友會硏劇部

◇同九時五分 歌曲 一、羽調二數大葉 二、羽調頭擧 三、半葉 金水晶 金金珠 洋琴金相淳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宇

三月廿四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京畿歌謠 一、平時調 二、小春香歌 三、달거리 四、靑春歌 五、朴淵瀑布 崔蘭坡 [illegible] 崔壽成

◇同六時 童謠獨唱 一、꼿밧 二、따옥새 三、물방아 四、장군석 五、즐거운나라 六、달님의생일 七、봄노래 八、메밀꼿 吉貞童 伴奏 尹鍾植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靈魂不滅에對하야 金顯大

◇同七時三〇分 (東)歌劇—九段軍人會館으로부터中繼—칼멘第二幕……비제-作曲 藤原三十三譯詞 리리아스파스자의술집 칼멘……佐藤美子 에스카밀리오……德山璉 돈·호세……藤原義江外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山田耕作 合唱指揮山本直忠

◇同八時一〇分 連續라듸오 드라마(二) 바다의夫人 全四景 헨릭입센原作 【配役】왕겔(村醫師)……薛貞植 에리다(왕겔의後妻)……裵恩受 브레데(왕겔前妻의딸)……金炳斗 힐데(同둘재딸)……羅喜衍 아른호름(家庭敎師)……韓相稷 림스트란드(彫刻家)……朴東根 바레스레드(畵家)……姜堯受 外國人(에리다의옛愛人)……張保羅 延專文友會硏劇部

◇同九時 合唱과獨唱 一、合唱 거룩하신救世主……멘델스존作曲 二、獨唱 저녁노래……떼물리作曲 三、合唱 그는아신다……로-드히-버作曲 四、獨唱 꾹오남……애봇트作曲 五、合唱 主는나의牧者……에슈포-드作曲 六、獨唱 가아름다운山上……하-거作曲 나、예수내靈魂의愛者……맥도-걸作曲 監理敎神學校合唱團 피아노伴奏 高鳳京 獨唱 HD아펜셀라 指揮 FE、부-쓰

新映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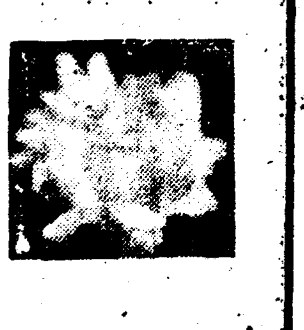
아기의설음

Little Miss Marker

『파라마운트』제작 알렉산더·홀-감독, 아돌프·맨쥬、셜리-템플、극연인데 어린이를위하야 제작된영화다 렙플의영리한 연긔와 맨쥬의 로련한연긔등으로 평범한내용을 살리느라고애쓴흔적이 잇서보인다 (紀新洋行輸入不日內市內서上映)

史上에나타난 藝術家의群像 ㊃

湖岩



鄭瓜亭과 歌詞

高麗때 歌人은 누가代表가될가 여기對해서아직까지 議論을 엇지못햇다 그러면 高麗때는 뚜드러진 歌人이 업섯는가하면 그런것도 아니다 설사 훌륭한歌人이잇서도 그이름조차 傳해주지 안는데야 어찌하랴傳해주는것은 漢詩와 그作家ㅣ뿐이요 鄕歌나 그作家에 이르러는 傳해주지 아니하엿다 우리는 여기서 高麗一代를 뒤흐르는 演化的風潮가 固有한歌謠까지를 끼트려 버린데對하야 畏歎하지안흘수 업다。 而因는 다르나 이를 政治上에 나가보면 唐宋의煩雜한制度를 그대로살작 옮겨와섯고 이를 歷史上에 나가보면 事大主義의가漸漸顯著하야저 金富軾이 三國史記를 編修할새 漢土를 主로삼고 東土를 從으로삼아 三國을中國의諸侯國처럼 맨드러 노흔것도 이때일이다 이와가티 自他를 混同하고 彼我를 顚倒한 그릇된精神이 文上에 나타날때는 漢字로된詩歌를 主로삼고 우리말로된 詩歌를 從으로 삼앗슬뿐이라 高하면 그나마 온을 소송이채로 업새버리고 말앗다。 高麗史樂志에는 二十八篇의 曲目과解說은 잇스나 정작알맹인 노래그것은單 하나도 실니아니하엿스며 오즉漢詩로되어이미漢詩化한 노래엿든 首가적혓슬 뿐이다 李朝成宗때 에된樂學軌範과 그리고 도關東地方으로 傳해온 노래몃篇이 업섯든들 오늘날 高麗때 노래라고는 거의 獨子가 업서질번 하엿다 이러케劫을 겨고나서 겨우남아 잇는 몃篇노래중에는누가시리와 가튼 絕調가 업는것이 아니로되 다만 그作者가 누구인지알 수업는것이 遺憾이다 高麗때노래로 그作者의 이름이 알리여진것은 鄭瓜亭의 作者인鄭叙와 關東別曲 竹溪別曲의作者 인安軸이 잇슬뿐이다。 鄭叙는 高麗仁宗때에 나섯고 安軸은 高麗末葉에 나섯는데 前者는 失意의人임에 反하야 後者는 得意의人이므로따라서 그 노래도 하나는 自己의 悲哀를 하소연한것이요 하나는 自然의 景致를 그려내인것이다 다만安軸의노래는 關東別曲 竹溪別曲 할것업시 모나 그 歌形이漢化 하엿슴으로 鄭叙의 노래만 갓지못하다 지금 鄭叙와 노래를 말하기前에 먼저鄭叙의 來歷을 알어둘必要가잇다。 鄭叙는 東萊人으로仁宗에게 寵用한바되어 벼슬이 內侍郞中에 까지 이르럿든바 毅宗이 님검 이되자 鄭叙를 울리처 그故鄕 東萊로 도라갈새 毅宗이 鄭叙 에게 말슴하기를 오늘날 朝廷 에서 너무떠들기때문에 할수업 서 一時間을 물리치나 얼마되 지아니해서 다시불을 불을터이 니 그리알라고 하엿다 그러나 그가 東萊에가서 오래동안 불 으기를 기다리고잇섯스나 마침 내 아모 消息이 업슴으로 너무나 안타가워 이노래를 지어서불으니 이는대게 그意思가 自己를 다시 거두어 써달라는 것이다 樂學軌範에 실린 그의 노래는 아래와갓다

내님을그리수와 우니다니
山겹동새난 이슷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둘 아으
殘月曉星이 아로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훈대녀저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도허물도 千萬업소이다
술웃브더신뎌 아으
니미나를 하마니조시니잇가
아소님하 도람드르샤 괴오쇼서

이노래를 飜譯하면
님글여우는양이 접동새와비슷하다
올코그른것은 殘月曉星이 알리라
넉시라도님한데 잇거니 무마음뉘잇스랴
千萬에罪업네만 이만하면 죄하오리
님이설마니젓스랴 反省하사괴오쇼서
益齋李齊賢의 漢譯이 잇스나여기는 적지아니한다。
(朝鮮歌謠集成에依함)

【正誤】 本文前回四十二、는二十二、의誤植입니다

學藝

봄잔듸에 흐르는눈물

◇◇◇ 지나날 이지지안는追憶 ◇◇◇

❶ 李寬求

눈 물 ×

눈물로 목메는밤
뮈겨보립 엇든그와
외로히 한밤을
울어샌적 업는그는
上天의 크나큰힘을
알길바이 업스리

나의지나간 한시절의生

活을 追憶해 보라하니 世人에 膾炙되는 꾀테의 이有名한詩가 머리에떠올는다。 내나이 겨우 弱冠을 지내어 高等學校로부터 大學에 옮기어잇기까지의 한三四年동안 快活하고 明朗하게 지내어 조흠법한 그시절을 나는 不幸하게도 悲哀와 눈물속에서 嗚咽하고말앗든것이다。 지금 그때에 적어노흔 日誌를 꺼내어보니 마치 아침해人살에 玲瓏히 빗나는 잔듸의 이슬처럼、글人자들人자에 매달린 눈물의 방울방울이 눈아페 선연하야 그때그슬픔속으로 다시 끌리어드는듯하다。

그러면 무엇이 그러케 슬어웟든가? 또 어째서 그러케슬어워섯든가? 이러케 分明하게 못는다면 나는 이에對해서 무어라고 對答할는지、지금도 모르고 이다음에도 알수업는

久遠의秘密에 부칠수박게

업다。

그形容할수 업는 悲哀는 바람과 가티 번개와 가티 갓업는곳에서 와서 갓업는곳으로간다。抑制할래야 抑制할수업시 어떤感情보다도 더 깁고 도 더 굿세게 속속드리 슴여들어 온갓것을 녹여버리고 만다。 활한 포기를밟어도 슬흐고、버레소리 하나를 들어도 눈물진다。이저것 차고만히 봄날에 이러이는 먼山의 아지랑이를 바라볼때나、가랑닙휘몰아 돌바닥을 슬어부는 가을의 바람소리를 드거나 어느때 어느것을、보든지 듯든지、내애는 끈허지고 내마음은 머히엇다。 萬物이 無心캇만 나는 그속에서 내悲哀를보고、내苦痛을 들엇다。 동무여 오지마송 「멋은 나를 嘲弄하나 나는 그래도 神을 向하야 눈물을 뿌린다」는윤님의 心境을 아는가 모르는가? 마시어 뮈지안코는안될

悲哀의큰盞을바든나는

곳 쓰러질듯 마치 모진바람에 부닷기는 갈시대와 갓다엿다。「빠스칼은人間을 가리처「생각하는갈시대」라고하엿지만、나는 悲哀를 늣기는 갈시대엿다。空間과 時間의 무거운十字架를지고 因果의무서운 채人죽을 맛지 아니할수업는 屢弱한人間의일이라 알고보면슬어운일이지만 나는 픽그러타해서 슬어운것이 아니오 슬움이 한本性처럼 잇업는 생으로부터 솟아나온것이엇다 알지못거라『悲哀는 綱島梁川氏의 말과가티『實로 人生의基調』라 할것인가。『이것은 無限한것을思慕하는悲哀요 神을求해서 엇지

이때의 나의生活을말하면 눈물이

나의糧食이오悲哀가곳

나의糧食이엿다。나의靈魂은 實로 이가운데서 자라나는것을 直感할수잇섯다。그때에 나의 질겨읽든冊은 聖書ㅣ그中에도『욥記』와앗시지의聖者 푸란체스코의 傳記며 『基督의模倣』과 綱島梁川의 『病閒錄』『回光錄』等이엇든것을 記憶한다。 居處는 京都 吉田神社앞松林을 등진 떠러진 조그만房ㅡ여긔서 어떤學生이 自殺한뒤로 아무도 들어잇지안햇든房ㅡ에 잇다가 北白川瓜生山목다의 鹿子가리 생긴 단간집에서 起居하든일이 생각난다。居處애기가 나왓스니말이지 계제에 한마디 말해두어그때의 나의生活을 推測케해보자。

雜念이생기어 것잡을수업

어느해겨울방학이가 神社압집에 잇슬적의일이다。한밤중에 홀현시되엇슬적에 나는 참다못하야 그냥 문을 바차고나서니 그때 내몸에는 홋겹뎌 寢衣만이 감겨잇슬뿐으로 발도 勿論 맨발이엇다。그러고 달리는곳은 눈싸힌 神社境內를 그대로 울라카서… 山속으로 밤새도록 올고 돌아다니다가 동틀구렴에 돌아온일이 잇섯다。 그리고 또 한얘기는 좀 동안이 떨어진일이나 언젠가 정월초하로날새벽에 생긴일이다。 前날除夕부터 여러가지 瞑想을 하다가 갑작이 내몸이 드럽고 밉게 보이어 그냥 문을 나서 北으로 北으로 加茂川을 끼고 올라갓다。 마침내 나서는곳、여긔는 傳說만흔 綠池라고、四方이 山으로 둘러싸여고 중중한 검은물이 萬籟俱寂한가운데 陰森하게 고여잇섯다。 여긔서 일어나는 寂滅의 늣김 죽엄의誘惑 곳 뛰어들라고 눈을 감고잇슬적에 好事者의 初鶯의 銳소래에 깜작 눈이 뜨이고말엇섯다。

植物分子를 처음으로分離하엿다고

【아ㅣ바나(일리노이州)發聯合郵信】 植物學뿐아니라 一般科學史上에서 特記할만한植物分子의 分離가 去月일리노이州立大學에서 完成한바가報告되여 世界植物學界에 異常한衝擊을興하엿다 右報告에는 죠ㅣ지·클라ㅣ크教授 以下多數硏究所員의 實驗報告가 添付되엿는바 어쨋든 植物學者가 纖維素、澱粉等의 分子分離의 硏究를시작하야 九十七年、顯微鏡下에 植物構成의極軸인分子가 分離抽出되여 人間의눈에 빗최기는 이것이最初의일이다。 여기까지如何한硏究에依해서나植物分子의分離가되지안흔理由에對하야 클라ㅣ크博士는 『植物分子는 一種젤리ㅣ形物質에 싸혀잇서 이것이如何히해도 맘속히除去되지안코 無理하게除去하라한즉 分子그것이 破壞되는것이다』라고 하고 『우리는 간신히거기에成功하엿다』라고말한다 그런데그植物分子란것이 經一·五미크론、橫一미크론의楕圓形으로 一미크론이 千分의一미리인고로 조그만事實이나、그水素原子의五十萬倍인것이다。 어쨋든지植物分子의 單獨抽出과分子構造測定成功으로 植物合成에잇서 第一步를 踏出할것이라고본다。

市內各學校 今年度入學試驗問題 (9)

徽文高等普通學校

國語科 第一回

一。左ノ漢字ニ讀假名ヲツケナサイ。
一部始終。獨言。森厳。連峰。口走る。

二。左ノ文中片假名ノトコロヲ漢字ニナホシナサイ。
『ハクブツカン』も『イチラン』しましたがりつぱな『カイガチヨウコク』の多いことは恐らく世界第一であらうと思ひました又塔にも登つて見ました塔の中には『バイテン』もあり『オンガクドウ』なども設けられてあります『チヨウボウダイ』でながめると市街は一目に見えます。

三。左ノ漢字ノ中カラ適當ナモノヲ選ンデ次ノ□ノ中ニ入レテ熟語ヲ作リナサイ。
識 史 健 低 謹 鐵 吏
讀 廉 讀
組□ 到□ 公□ 成□ 謹□

四。左ノ文ヲ讀ンデ次ノ問ニ答ヘナサイ。
商業は之に從事する商人だけを利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い。商人たる者は、よく共同生活の意義を辨へ、品質のよい品物をなるべく安價になるべく敏速に供給して、廣く公衆の爲を計らなければならぬ。これ即ち世間の信用を博して堅實に自己の事業を發展させる道である。
(イ) 商業ヲナシテ信用ヲ得ルニハドウスルカ。答。
(ロ) 共同生活ノ眞意義トハドンナコトカ。答。

五。左ノ文ノ『 』ノ所ヲ解釋シナサイ。
(イ)
佛眼の深大なる慈悲心と『あくまで初一念をひるがへさざる熱
(ロ)
心』とは、強く人々を『感動せしめしにや、』喜んで寄附するもの意外に多く、此の度は製版
(ハ)
印刷の業『着着として』進みたり。
(イ)。答
(ロ)。答
(ハ)。答

六。左ノ文中ニ漢字ノ誤ガアツタラ其ノ右側ニ直シナサイ
(イ)大體[illegible]新聞ともいつてよく[illegible]にある。
(ロ)判事 檢事 辯護士は裁判に關する仕事をする

[國語科 第二回]

二。左ノ言葉ヲ目上ノ人ニ言フ言葉ニ改メナサイ
(イ)『僕ガ行ク』 答
(ロ)『コレハドウスレバヨイカ』 答
(ハ)『客ガ來タ』 答
(ニ)『ココニ來イ』 答

三。左ノ文中『 』内ノ語句ノ反對ノ意味ヲモツ語句ヲカキナサイ
(イ)集めた液は之を工廠に持つて行き先づこして『不純な物を取除き、』次に薬品を入れて固まらせ、』機械で薄くのして乾かすのである。
問, 不純な物を取除き
答
(ロ)斜面などに植ゑた木は,『低い處にあるもの程早く大きくなつて』とする差が段段少くなつて行くのも面白い
問 低い處にあるもの程早く大きくなつて
答

四 左ノ文中ニ誤ツタ言ヒ方ガアツタラ其ノ右側ニ書キ直シナサイ
(イ)
裁判所は,刑罰の疑のある者を十分に取調べて,適當公平な裁判をする。犯罪者を罰するための裁判を民事裁判といひ,訴へられた者が原告で檢事といふ役人が被告に當るのである

五 左ノ文ヲ讀ンデ次ノ四ツノ問ニ答ヘナサイ
宣長いはく私はかねがね古事記を研究したいと思つてをりますそれについて何か御注意下さることはございますまいか
眞淵いはくそれはよいところに氣がつきました私も實は我が國の古代精神を知りたいといふ希望から古事記を研究しようとしたがどうも古い言葉がよくわからないと十分なことは出來ない古い言葉を調べるのに一番よいのは萬葉集ですそこで先づ順序として萬葉集の研究を始めたところが何時の間にか年をとつてしまつて古事記に手を延ばすことが出來なくなりましたあなたはまだお若いからしつかり努力なさつたらきつと此の研究を大成することが出來ませうたゞ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順序正しく進むといふことですこれは學問の研究には特に必要ですから先づ土臺を作つてそれから一歩一歩高く登り最後の目的に達するやうになさい

(イ) 眞淵ハ何ノタメニ萬葉集ヲ研究シマシタカ。
答
(ロ) 此ノ研究トハ何ノ研究デスカ。
答
(ハ) 土臺ヲ作ルトハココデハ何ヲスルコトデスカ。
答
(ニ) 眞淵ノ學問ノ最後ノ目的ハ何デシタカ。

算術科(第一回)

1。次ノ各式ヲ計算シナサイ。(運算。答)
(イ)。$12.5\times3.6-92\div2.3+4.5$
(ロ)。$1\frac{1}{5}-(3\frac{1}{3}-2\frac{1}{6})+5\frac{5}{6}$

2。甲乙ノ所持金ヲ合セテ195圓アリマス,甲ノ所持金ハ乙ノ所持金ノ2倍ヨリモ 15圓多イトスレバ,甲乙ノ所持金ハ各幾ラデスカ。(式,運算,答)

3。或ル人ガ金25000圓ヲ三子ニ分ケルノニ,長男ニハ其ノ$\frac{2}{5}$次男ニハ$\frac{3}{8}$末子ニハ殘リヲ與ヘマシタ,末子ノ所得ハ幾ラデスカ。(式,運算,答)

4。炭酸がすハ炭素ト酸素トノ化合物デ目方ノ割合ハ炭素3ニ對シテ酸素8デアリマス,374gノ炭酸がす中ニアル炭素ト酸素トノ目方ハ各幾ラデスカ。(式,運算,答)

5。日歩2錢4厘ヲ年利率ニ直セバ幾ラデスカ。(式,運算,答)

(以上60分間)

算術科(第二回)

1。次ノ式ヲ計算シナサイ。(運算,答)
$7.63+1.73\times9-18+6\times\{(5.1-3)\div7\}$

2。次ノ各數ヲ大サノ順ニ並ベナサイ。$\frac{3}{4}$, $\frac{7}{14}$, 0.6, $\frac{7}{20}$

3。或ル人ガ家ヲ買ツテ其ノ$\frac{3}{13}$ヲ損シテ4200圓デ賣リマシタ。幾ラ損シマシタカ。(式,運算,答)

4。2.88ニ0.072ヲ幾回加ヘルト,ソノ和ガ9トナリマスカ。(式,運算,答)

5。$\frac{3}{4}$ノ分母ニ16ヲ加ヘテモ分數ノ値ハ變ラナイヤウニスルニハ分子ニドノナ數ヲ加ヘネバナリマセンカ。(式,運算,答)

6。或ル學校ノ入學志願者ハ810人デアリマシタ,其ノ中缺席者ハ10人デ,入學許可ニナツタモノハ受驗生ノ1割8分デアルトスレバ,入學許可ニナツタモノハ志願者ノ幾割幾分ニ當リマスカ但シ分以下ハ四捨五入シナサイ(式,運算,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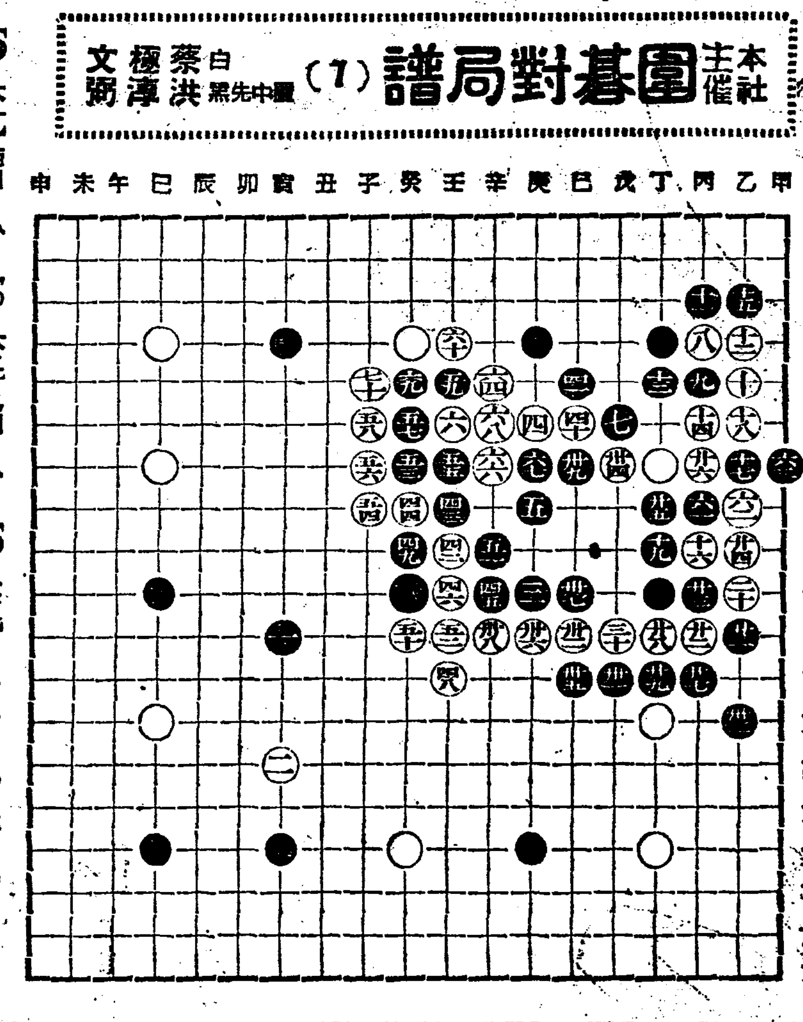
(以上60分間)

피ㅡ브스日記 다시금二部發表

【倫敦聯合郵信】 十七世紀英國의 學者쌔뮤엘·피풉스(Samuel Pepys)의 日記는 記文學의 白眉가 될뿐아니라 當代文化史究明의 貴重한史料로서 史家의 側으로도 甚히 珍重視되는것이바 現在와러진것은 一六五七年一月一日로부터 一六六九年 五月卅一日까지의것에不過하고 一六六八年으로부터 一六八一年에 至하는 所謂法王陰謀(포ㅡ피쉬·플롯트)에 關한 記述이 업기때문에 甚히可惜한일인바 今回켐브릿지에잇든마달ㅣ렌·칼레지藏書인 피ㅡ브스文庫中으로부터 피ㅡ브스硏究의大家아ㅣ서·브라이안트 프란시스·터ㅣ너ㅣ 兩氏에依하야 그時期의것과및 제임스二世와 그關係에關한 感想을記錄한것이 發見되여피ㅡ브스硏究家를狂喜케하엿다。 特히注意할것은이때까지알려진것이라어ㅣ느것이나 [illegible] 新發見日記의價値에對하야 [illegible]는 『피·브스의日記에對하야 가장[illegible] 社會的으로[illegible] 과往來한때이므로 [illegible] 今回의 發見에依하야 우리는 第二[illegible] 함께포ㅡ피쉬플롯트에關한새知識을엇게된것이다』 이것으로써 보면포ㅡ피쉬 플롯트는 라이타스·오ㅣ트인新教說教師가 지어낸陰謀로써 캐톨릭教徒가 찰ㅣ스二世의 暗殺을企圖한다고誣告하야三十五人이死刑된事件이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7)

白 蔡極文
黑先中盤 洪淳弼



【●六一】丙의八 【○六二】乙의八 【●六三】甲의七 【○六四】辛의五
【●六五】辛의六 【○六六】辛의七 【●六七】庚의七 【○六八】辛의六
【●六九】癸의五 【○七十】子의五
⊠點 死 【●六五】辛의六

◇對局者談

黑이 丙의八로 衝進하야 乙의八로 白을 應케하고 甲의七로 起立破戶 함이 時期尙早가 아닌가 黑中央進擊가 此重 因緣하야 反受其困하고白은 子의五、六、七로 長城을 建築하엿스니 棋家古諺을 試一觀之어다 孤生大竟면 終見必敗요 攻彼顧我면 惡有是理乎아 此等法은 須從局外而觀之하라

自由文壇

創作 『暴陽알에서』 (二)

崔仁俊

푸른벼닙새가 크게 흔들리엿다。

벼닙새는、벌서무릎위를 써! 올라섯다。장님을내뻐처서 김을 매노라고 업드리면 땀이철철흘은눈얼굴에 목아지에 땀다리에 슬치고질리엿다。

ㅡ한낫이되니까 배가 고팟다。

모두 기운이업서서 척척늘어젓다。

『제기 점심이안나오나』

누가먼저 입을열어말을안해도 그들의마음은 이러케들을짓고잇섯다。

밥을먹어야 풍풍한배를채울수 잇다。 뿐만안이라、악쓰고일하기에소비한에너ㅡ기를 회복식히고 따라서 지금까지의 피곤을 어느정도까지 완화식힐수잇는것이다。무엇보다도 배가곱흐고서야 엄두수가업지안흔가。

『제밀 점보선대오주내일인가』

마츰내 김서방이 불평을터트리엿다

『배人가죽하고 등가죽하고 사돈지내겟네』

그리고 여러사람의동정을구하는듯이 사방을휘돌아보다가ㅡ 창식이의성난듯한눈초리와마주치자、김서방은얼른、고개를돌려엿다。ㅡ오늘은 창식이네가 세벌김을시작하는날이엿다。

욕이 타는듯뭘려서、논바닥의 손으로옹키여서 물거품거살키든 김서방이、도어느새얼어나서방정맛게소리첫다。

『됏다』

그소리에 여러사람이 일시에 얼굴을처들엇다。됏다ㅡ는 점심끄리가 나온다는뜻이엿다。그래서꼬네들은 약속이나한것처럼 봉쪽산모퉁이를바라보는것이엿다

봉쪽산모퉁이를돌아서ㅡ야속으로오는논두렁길에돌어선 점심끄리를니은녀인네가 그리머지안케보이엇다。

압혜 국동이를니고 종종걸음옴치는것이 춘보의딸명순이고그뒤에 밥함지를니고 어기적거리는것이 창식의어머니엿다。압뒤잡에살어서 범판에일하는날이면 서로돌보아주는것이엿다。

명순이는 노랑저고리의 하얀 압치마를둘럿는데 해볏에유난스럽게、번쩍이여 뵈이엿다 새밝안댕기끄리가 날신한허리풍에찔려잇섯다。

창식이엽의김서방이 버드렁닛새를 힛죽뵈이면서 창식의 엽구리를 쿡!찔럿다。

『명순이야。춘보딸명슌이』

명순이와 창식의사이가 그러치안케지내는것을 몰으지안는 김서방이 창식이를놀려주는 말이엿다。

『왜어리슈』

창식이가 머리를벅저벅저 긁는것을、

『아주조와서』

하고 픽웃으며 그리고……무슨 생갈을하는지 김서방이、혼자말처럼말하엿다。

『나두 저런것하나 데리고 살엇스면』

ㅡ그러니깐 저편의 춘보가 머리를 넘실들엇다。

『엑기 흉ㅅ게 염치업시』

『아주、마음도 흉엇슬까』

『아수、아수』

어데서 품팔이를왓다는 삼십남짓한 일꾼이 기가맥히다는듯이 김서방얼골압으로 손을 내저엇다。

『왜이래、나는춘보사위깜이 못된단말인가?어떠케하는말야』

『저런 좀마게상이』

춘보가 두눈을딱、부르떳다。

『글세 그러지말고주어만보지』

『상기도 말성이야』

춘보가 이쪽으로오려는기색을 뵈이니까 김서방이또 접에질려서ㅡ

『안될세。안야장인력감안이란바게ㅡ』

하고 두손을모와서 쫘싹부비며 창식이뒤로쫓겨간다。그리고 창식의억개를 툭!툭!첫다。

新刊紹介

◆前線 第十九號 京城府慶雲洞八八 天道教青年同盟本部發行 振替京城一六九四七番定價三錢

◆獨學通信 第三十七號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校會發行 振替京城八八九五番 定價五錢

◆婦選 三月號 東京市麴町二ノ三ノ三 婦選獲得同盟發行 振替東京七〇三八二番 定價十錢

曆

三月廿三日(土) 舊二月小十九日 庚戌·木·胃·危
◆日出六時[illegible] 日沒[illegible]
◆滿潮[illegible]

結核性解熱劑
エルボシン
에 루 본
腸질부사熱及傳染性發熱에適劑
에루보은急激히一時的으로下熱을식혀서服用後몸이납버짐과가튼解熱劑와는其作用이全혀달르고、몬저毒素를처서白血球를增加식히고順序的으로더구나確實히解熱하야秋毫라도病者의體力을消耗식히는일이업다。(錠劑·粉末)
文獻說明書는大阪市東區瓦町ビル內日本化學工業株式會社及滿洲國新京에申込하시면卽時郵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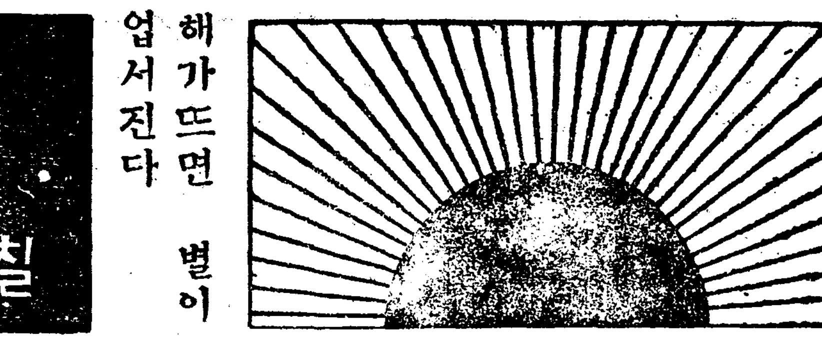
神經榮養强壯劑
フイチン
후이진
頭腦를明快케하고
身體를强健케함
各藥局、百貨店藥品部에서販賣함

强力男性호르몬
アンドロスチン
안도로스진
그優秀한點은……
動物의 新鮮睾丸에서 水溶性及脂溶性의 有效成分을完全히抽出하야 嚴密한生物學的檢定을行하야서 效力을 一定하게한것이다
精力減退·體力減退
心身衰耗·生殖器衰弱
早老症·性的神經衰弱等에適用함
本劑는短時日의服用으로도効力을自覺하게됩니다
靑春의源泉
活動의要素
內用錠劑 及 注射液
日本及滿洲國總代理店 發賣元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說明書는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內西バー ゼル化學工業會社日本及滿洲國事務部에 申込하시면 卽時郵呈함
各藥局、百貨店藥品部에잇슴

春季新學員募集
全國靑少年諸君!! 全國獨學者諸君!!
機會は今!! 早刻本講義に學び輝かしき判任官たれ!!!
小學卒業程度 短期自宅獨學で 一躍必ず判任官になれる
判任文官講義
獨學者諸君!! 諸君の成功は先づ判任官になることです。本講義は斷じて無駄な道を踏まず最も早く判任官になれる秘訣を授けるものです。この講義は無論の事、傍ら學べる法學の基礎知識も早く會得され、三四ヶ月で全く獨學出來る新講義です。是非の判任官・書記・看守・森林主事・警察部長・鐵道書記・官吏・遞信事務官・稅務官吏・滿洲國文官・各種の判任官・文官に入學が出來ます。絶好な機會です。今直ぐ入學あれ!!
目下特典提供
學費金貸與·私立大學入學便宜·學習指導部(賞品進呈·學掌中六法全書進呈·地指導)及相談部利用等(其他內容見本に詳細發表)目下特典提供
講義見本(頁五十頁)進呈
本講義の內容見本中には、學則、講義見本の外▽獨學判任文官試驗突破記▽文官試驗十五種の學科表▽獨學判任官から高等官への指針▽從前の講義錄になき指導說明等の有益記事が滿載されてゐるから是非見本を一讀あれハガキにて申込次第無代にて進呈する
即刻!! つ先づ見本を請求あれ!!
東京市下谷區上野櫻木町二〇の四
日本普文大學出版部
受驗要訣 最高指導
月刊受驗號
受驗
▽獨學で朝鮮辯理士になる法
▽獨學で辯護士になる道
▽刑務所看守採用試驗案內指導
▽外務書記生採用試驗案內指導
▽昭和十年度外務書記生受驗者
▽各種文官受驗志望者へ
▽專檢受驗者へ
▽東京で就職するには
▽中學商業學校への編入
▽小學を出ただけで大學への入學
▽一以貫之の精神
▽精神は劍よりも强し
▽法律論文(答案構成法)
先輩のとれる具體的精細受驗準備法
四月號 全國書店にて愈々發賣中
定價二十五錢
日本普文大學出版部

神聖堂 신성당

아침해발갓치흥왕하는 신성당



해가뜨면 별이 업서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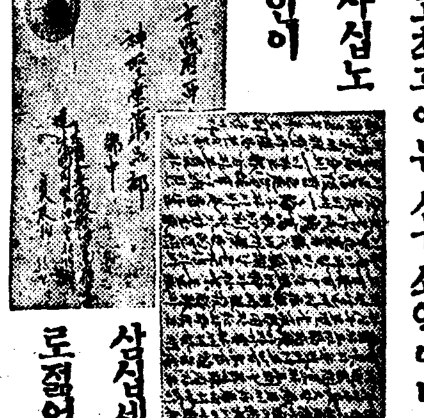
七大名藥 칠대명약

보양보음 젊어지는약은 가이자가 제일이요

효력최극상 최득등 동서양에 제일유명한 약의정분만 만히 느엇답니다

사람이 제일 몸이 건강하여야하고 십흔 일을하는대 근래는 튼튼한 사람이적고 약한분이 만허진다。 신경쇠약이나 양기부족이나 원기가부족하야 마음대로일울 못하게된다。 그리고 인생의 제일향락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은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새로운 재앙이 심하여짐으로 뇌를 만히 쓰게되고 애를쓰고 번민이 만해지고함으로 자연히 원기가 쇠약하며 빨리 늙게된다。 따라 양기도업고 최후에는 신경쇠약이니 폐병이니 하고 오래 못살고 세상을 버리게된다。 사람은 보통 백살까지는 수명이 잇스나 백살까지 못하는것은 원기가 왕성하여야 사회에서 하고십흔일을 할것이며 인생의 향락도 영구히 잇슬것이다。 그런고로 다년연구한 결과 먹는약으로 보음보양하며 로인도 원기와 양기가 왕성하야 청년과가치 될수잇는 즉불로초라 할수잇는것을 발견하엿다。 지금보통잇는 생식기약이니 호루몬약이니 하는것은 일시적으로 생식기만 흥분식혀 양기와 정력만 업새고 그후에는 심히약하여지고마누대 이가이자(KAIZER)는 원동력인 원기를 양성하게하는동시에 보양보음을하야 생식기를 자연히 흥분식히는 작용이 잇슴으로 원기와양기는 점점 왕성하여질뿐이요 쇠약하여지지는 안는다。 림질과 매독을 알엇던지 과색과로하고 또 선천후천적으로 몸이약하야 양기부족하고 원기업고 신경쇠약증잇는분은 속히 가이자를 쓰시오 양기부족、원기부족、음위、속히되는분、불감증、쾌감업는분、신경쇠약、빈혈증。

【약가】 중증에 십원、경증엔 오원、송료는 대금인환은 삼십전、선금은 무료 (약은환약이오)



사십노인이 / 삼십세로젊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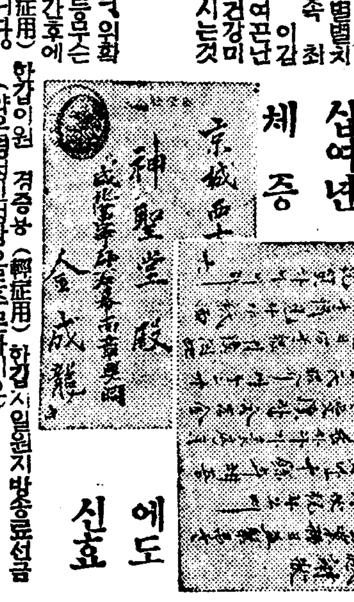
깽오ー 체증과속병엔

효력최극상 최득등、최근에 전세계에 유명한후에 깽오ー에제、도만히 드럿고、세계적대신발명한약제도 전보담만히더 느엇답니다

무병이장자요 신외무물이라니 병이잇고는전세세계재산이다ー자긔것이라고하야도 소용이업고 산해팔진미기운압헤태산가리싸여잇서도 먹고십지안으니 위장병자의 일평생에욕망은 무엇보다도 빨리위장병이 나어서구미잇서 음식먹고 잘소화하야건강한 정신과 건강한육체로 활발스럽게 남과가티 활동하고 십흔것밧게는 더바라는것이업스리라 업때까지 조치못한 일시적효력업는 좋든거나 연히안든전거나 그러치안으면 인이배이는 중독하는약을 연복하여 백방으로 별별치료를 다ー하여야 이특별한효력을 못보앗스리라 그런데참신기한 최급속 최고귀한위장신약 깽오ー를 발견하엿다 그효력의위대한증거는답지하는 이감사장이 증명하오니 잘보시고안심하시고 백방으로치료하여도 잘안되여곤난하는분은 최후의 깽오ー를일각이라도 빨리쓰시와인생의최대향복인 건강미를맛보시오 이약은 남녀노소업시유아간기에신효하니가정상비약으로 두시는것이우리위생상제일필요합니다

◇이런증세에분은 쓰시오◇

◇소화불량 만성위장가다루、적、괴、위괘양、구미업는대、신경성위약、위확장、위산과다증、위하수증、구식조선말로주체、담체、회적、냉체、식체등무슨체증이든지 단시간에낫습니다 약은 가루약인대하루에세번 식후반시간후에 온수나냉수에먹습니다。 약갑 완고용(頑固用)한갑삼원 중증용(重症用)한갑이원 경증용(輕症用)한갑에일원 지방송료선금이면 무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전 약가를우표삼십전자리로보내도조습니다。 (약은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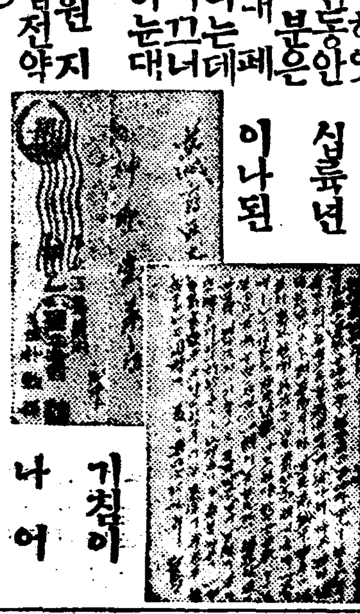


십여년 체증에도 신효

기침·담·천식엔 엣치삐ー가 제일이요

남녀노소업시 대개기침을하는거시인데 여러해된 천식해소 천촉으로 별별약를쓰고 별별치료를 하여도 안낫든 해소가 신발명한엣치삐일주일분으로 대효를보앗다 그러나 몃년동안 기침담이야곳 효력을볼수잇다 다음과갓흔 분은 곳쓰시오 감기 기침은 물론 해소와담나오는 폐병부족증으로 기침과담이 장바치며 쿨룩쿨룩하는데 기침이되게나와 홀근홀근하며 젤젤하며 숨이끄너질것가튼대 되게안나와도 조금식바튼 기침하는대 기침은안해도 장ー담이나오는대ー

【약가】완고용삼원 중증용이원 경증에일원 지방송료는 선금이면 무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전 약은환약이오 (약은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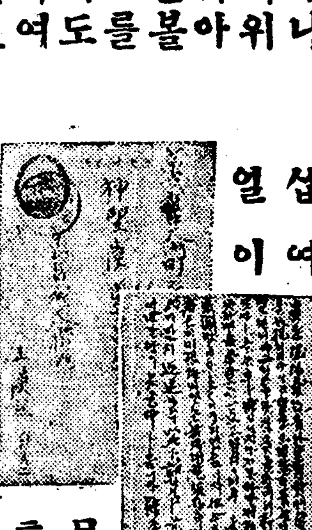
십륙년이나된 기침이 나어

매독에는 푸로다ー가제일이오

효력최극상 최득등、六百六호이상의 효가가난답니다

매독은 선천후천두가지로 선조유전또는 전염으로발생하야대개는사루바루상즉六百六호주사 몃대하여야 겨우일시적으로 눌너지지만완치가 잘안되고 여러번재발함으로 이세상에서매독이업서지지안함을보드라도 六百六호가지고는불완전하다고하야도 과언이아니라 그래서 이불완전한점을업새기위하야 다년고심연구한결과 주사가아니고먹는 약으로 열주일에대효를볼수잇는매독약 (푸로다ー PROTER)를발명하엿다 여러가지로 치료하여도아니되여 고통하는분은 곳시험하여보시요안심하시고염여마시고쓰시요 이런분은 쓰시요○남녀의국부가 허럿스며 가려운데 눈이 허미하고팔다리가쑤시고목이쟁기고 머리가빠지며 여기저기 종기가터지는데 또 창병 감창코허는데 등에 신효합니다。

【약가】완고용 칠원、중증엔오원、경증엔삼원、송료、선금이면 무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전 (약은환약이어요)



십여년이 못되여 특효

구로벨 림질과대하증에

구로벨이 제일이요

효력최극상 최득등、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 독일약(헤루미도ー루)도 만히들엇고 세계적대신발명한약제도 전보담만히 더 느엇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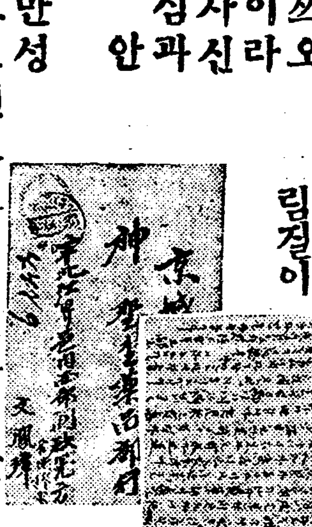
◇남녀만성림질、부인적백대하증、남녀 냉병、오즘소대、월경고르지못한데며、하혈(下血)등으로 별치료를하여보고 별별약을써도 무효하야 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여 고통하는분은 이것 저것주저할것업시 안심하고 제일먼저대신발명하신(KUROBER)(구로벨)을쓰오 구로벨은 둘도업는참신기한 약이라 들림업시 대효를본다 이러한 자신(自信)을 어든과결과환자의 안심과 신용을 엇기 위하야장담하오니 안심하고쓰오 구로벨의 특장

一、여러해된고질 특히재발한 만성림질과 대하증은물론 림독성으로된 방광염 고환염(산증) 섭호선염 자궁내막염、란소염、라팔관염뇨도협착등에대효가잇고

二、이약은 다른약가치 지리하게 오래안먹고 만급성간에 오래된고질 만성 제증이라도 일주일이상 먹을필요가업고

三、림질약 치고 위장이 안상하는약이업는데 구로벨만은 조금도 안상하고 다른 부작용이 조금도 업슴으로 위장이 약한분이 만히 먹어도트림하나 안난다는 말은대효본 여러분의찬송하는점이오 그런데 이약이 속효가나고 다른약으로 잘안되는것은 다른약은 오래먹게되여 그동안조섭이 곤난한 소치다

【약갑】완고약성용九원、만성기타제증에五원、대하중 냉병기타 부인용에 五원、부인오즘소태에 삼원、지방송료 선금무료、대금인환은 삼십전 (오원이나 삼원이나 다 일주일분)



수십년 림질이 이와 갓티

부족증·폐병·륵막염엔 나오삐ー가제일이요

폐병은 불치의 난병으로 일년에사망자가 수십만명이되는데 종래의 치료가 불철저한것갓다 입때까지는 즉접환부의 균을죽일나고 드럿스니 그래서는 절대로 안낫는다 살균도필요도 잇지만 한편으로 몸도 보하고 원기를 도아주어야 한다。 그뿐더러 잠식(蠶食)하는 부분을 막는 법이 새로 발명되엇다。 즉살균보혈강장 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일시에하여야된다 이작용을 식히는데 종래에는 여러가지 치료법이 잇섯다。 제일에 약먹어서 고치는법 음식을잘 먹는법 일광욕료법 산소료법 가루숨흡입료법등 여러가지가 잇는대 약한가지로 이여러가지 작용을 하는 법을 다년고심연구한결과 발명하엿다。즉 삼기의 중병으로 고롱하는 환자도약을먹기 시작하야 열흘동안에 대효를본 참 신기한 약이다。이러한 자신이 잇슴으로 안심하시고 별별약을 쓰고 백방으로 치료를하여도 안나어 고롱하는분은 일시라도 속히 나오삐ー를 쓰시오 이런분은 쓰시오

▲구미업고 잘체하고 기참하고 담을뱃고 열이나고 몸이 파리하여지고 혈담과 피를토하고 숨이차고 원기가업고 가슴이아프고 역구리가 절니고 갈비때도 아푸고 수족이 찬분 즉부족증 패병륵막염 복막염 뇌점병

【약가】삼기용이십원 이기용십원 초기용 오원 송료는 대금인환이면 삼십전 선금이면 무료약은 가루약이오 열흘만 먹습니다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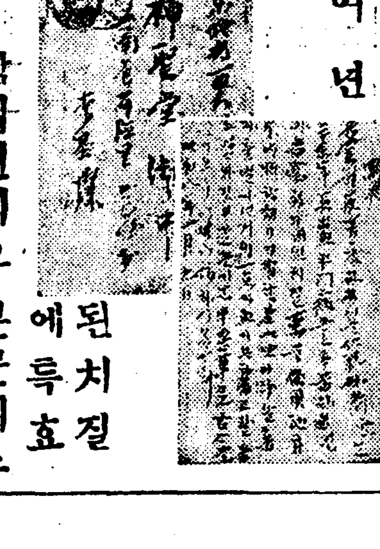
오륙년된 폐병이 이와가티

치질에 엥구루가제일이요

누구나 몰론하고 대개치질이잇는대여러해된치질로 수술을멧번이나하고조선약한약상약 별별치료를하여도 종시 낫지안튼 치질이엥구루(ANKUR)이주일분으로대효를 보앗스니 일이년된것이야곳효력을 볼수잇다 다음가튼분은 안심하시고 곳쓰시오 피나는대 황문이빠지는대 암치질 숫치질 치루치결핵 무슨 치질이든지 치료됩니다

【약가】 중증이 이원 경증엔 일원 송료선금이면 무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전이오 분문에느키도하고바르기도하는약

【약은 경성 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이십여년 된치질 에특효

만일 무슨 약이든지 이상일 쓰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 노병에안맛거나 광고와 틀니는점이잇거나 마음에안맛거나 현저한특효가 업거든 약을곳보내시오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슴니다

支店代理店特約店大募集

◎七大名藥外數十種을破天荒的大特典으로——特約店

大募集을하오니누구시던지規定書를請求하사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제일은서양돌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신성당약품부)

電話光化門三四三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世界經濟趨勢

歐洲金本位危機 ③

申泰翊

구는佛蘭西아래 超然的으로金本位블럭을 結成하고 또는이것을 固守하여오든터이나 前回末에서 말한바와가티 이金本位블럭의崩壞를 豫傳케되는根據가 어데 잇는가하면 무엇보다도 世界市場에잇서 二大勢力으로 볼 英米兩國의通貨動搖는 金本位블럭의頭上에威脅을 加하는結果가 되여온다 그래서 金本位블럭의諸國이 처음에 생각하든 바와는그의希望하는길이빗가게되고 딸아서金本位블럭이 崩壞되지안흘수업는 危險에 빠진것으로 보는根據가 이곳에잇는것이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오늘에잇서 金本位블럭이 命在頃刻에잇을것으로 보는데는 外的事情과 內的事情의둘로 난우게되다 即

×

첫재로 磅貨와弗貨의暴落으로 中歐金本位의 諸國은 物價를 안떨어트릴수가 업게되고 또는 産業界不振을보게되엇다 그러나 金本位停止의나라는 物價가 貨幣價値의低落率에比하야는그대지 昻騰치안흔때문에 金本位는 貿易에잇서 輸出이 곤란케되고그와 反對로 輸入이 증가케되야結局에는 貿易의逆調가 顯著케되고 또는 失業者數의 激增을보게되며 딸아서 財政의 歲入減少로 佛蘭을 비롯한 諸國을通하야 財政上의赤字가 增加의傾向을 띄이고 잇는터이다 이것이 金本位의 危機를 傳케한外的事情으로 볼것이다

×

둘재로는 金本位危機에對한內的事情이다 即 中歐金本位블럭의諸國은 그結成을 固守하라고 하지만 實際에 잇서는 서로 利害가 相反되는 境遇가 만흠으로 恒常 그들의거름은 不一致를 보게된다 이런때문에 昨年九月과 十月에 金本位블럭의諸國은 부라셀에 모혀서 블럭固守에關한 補强工作을 協議하엿스나 이結果는 블럭間의貿易을 一割가량 늘게하기로한程度에 不過하엿다 그러나 이協議後에 잇서도 何等의進展을 보지못하고 時時로 金本位블럭의한모퉁이로부터 그崩壞가 시작될것가튼 危險이 多分으로 잇서보혓다 그런데 무슨까닭으로 金本位블럭固守에잇서서 그처럼 結束力이 薄弱케되엇는가하면는 以上의外的事情이 무엇보다도 큰理由로 될것이나 그다음에는 金本位블럭諸國의 國內的事情이 서로 갓지못한 點도 한理由로 되어잇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佛蘭이 盟主가 되야 從來의 金本位블럭은先頭에서 金本位停止에으로부터 물러드는 重大에 對抗하는 旗幟를 노피들고 나아가지만 그뒤를 딸흐는 블럭結成의 諸國의걸음은 支持의熱이 적고 서로各各그方向이 經濟危險性이 濃厚한것을 가르켜서 危機直面이라고 함이 頻頻히世界에 放送케되여오는것이다

×

以上과가티 金本位블럭諸國의거름이 서로 달흔것을보면 大體이러한것이다 即 伊太利가 金本位는 維持하고잇는나라와가티 보히지만 名目的으로는 實狀은 金本位停止의나라와 거의가튼 狀態에잇다 또는 瑞西는 自國의經濟政策에對하야 一般의投票로써 定케되엇다 라고하다 그러고 「벨지움」에서도 銀貨의金本位制로 轉向할應援에잇고 더구나白耳義는 國民經濟의事情이 到底히 金本位制를 維持할可能性이 거의 無한狀態에 잇든것이다 그럼으로 佛蘭、和蘭은容易히 金本位를 自由롭게 運用키 어렵게되엿다 그러나英佛의 平和協定으로 歐洲政局의安定을 保持하고 이로써金本位블럭이 危殆危殆하면서도 겨우 그崩壞를 免하여온것이다 이러든것이 이번에 獨逸의軍備擴大의 宣言으로 因하야 歐洲政局이 흔들리게되고 딸아서 또金本位블럭의 危機는 白耳義로부터 擴大하게된 것이다 (續)

粟輸入關稅滿期압두고

朝鮮內輸入減少

農家食糧上益念慮

總督府는現狀存續을內定

滿期後粟價如何重視

今月中의粟價趨勢를 보면上旬에滿洲粟은 十圓六十錢、天津粟은九圓二十錢을 高價로하여 오가지고그뒤 모두떠러저와 오늘에잇서는 그上旬中의高價보다滿洲粟은 八十錢低、天津粟은六十錢低로되엿다 그러나別項의總督府發表인 今月中旬의粟輸入은 三萬四千餘石으로前年三月中旬輸入 四萬五千餘石에比하면一萬餘石의 減少이다 이와가티 粟價가 떨어젓슴을不拘하고 農家의食糧上異常을 보고잇는이때에 粟輸入量이줄은것은 무슨까닭이냐고하면今月末로써 滿期가되는 粟輸入關稅(百斤에一圓)가 撤廢케되지안흘가 하는생각으로 米穀貿易商은 粟輸入을 當分中止한 關係이라고한다 그럿치만總督府側의 意向을드르면 粟輸入關稅는 四月로부터도 現狀대로나아갈方針을 決定한모양이다 그럼으로 이現狀存續을 正式으로發表케되면 粟輸入은 다시增加케될 形勢임에잇다 그런대 이미 天津粟輸入成約은 約二萬噸에達하고또는 天津粟의輸出餘力이 別無함으로 그輸入도 今後에繼續하야顯著한增加가 期待키어렵고 더구나關稅가 存續케되는을딸아서 粟價의昻騰을招致케될는지 모른다고한다 이와가튼結果는 압흐로春窮期에 드러갈朝鮮農家의食糧上 威脅을倍重케할念慮가만허보인다고한다

天津粟輸入總量

仁川其他二萬噸成約

滿洲粟의奔騰에 刺戟되어 天津粟의買氣가 爆發되어仁川을비롯하야元山、城津、淸津等에約萬噸內外의 成約을보앗스나 그뒤 滿洲特産品의慘落과 天津粟繼續入荷로 一時食傷氣味이며 産地와의取組는中絶狀態이라한다。그러나産地로서는 低下되면賣物不自由로 轉하야一時低價보다 百斤二〇錢이引返되고意外頑强狀態를呈하고잇다

▲天津粟賣價

正味百斤에 仁川貨車乘値

直積 金八圓七十五錢

四月上旬積 金八圓七十錢

四月中積 金八圓六十五錢

五月中積 金八圓六十錢

米移出增加

今月上旬中數量

【二十二日總督府發表】三月中旬의 米移出은 三十二萬六千餘石으로 이것을前年同期에比하면 二萬六千餘石의增加이며 昨年十一月以後 累計는五百十九萬二千餘石으로 前年同期부터七十萬五千餘石의增加이다 그러고粟輸入은 三萬四千餘石으로前年同期보다 一萬餘石減이나 昨年十一月以後累計는四十一萬四千餘石으로前年同期보다四千餘石의增加이다

▲米輸移出高

	輸出 今年	輸出 前年	移出 今年	移出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中旬	四、一三五	三二〇	三二六、三二八	三〇〇、一六二	三三〇、四六三	三〇〇、四八二
十一月後累計	六〇、五三三	三三、八七五	五、一九二、九八二	四、四八七、七三四	五、二五三、四九四	四、五二一、六〇九

▲米輸移入高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中旬	—	四	一、一〇一	三二六	一、一〇一	三三〇
十一月後累計	二六	二〇	六九、〇二九	一六、三八八	六九、〇五五	一六、四〇八

▲粟輸移入高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中旬	三四、七九九	四五、六〇九	—	—	三四、七九九	四五、六〇九
十一月後累計	四一四、〇六七	四一〇、九一〇	七〇九	七	四一四、七七六	四一〇、九一八

▲東京爲替(廿一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七 買 二十七弗十六分十三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三

▲大阪爲替(廿一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 買 二十八弗十六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一 買 一志二片八分一

鹽油運賃

東京에서決定

昭和十年度朝鮮産鹽油船運賃은荷主의 希望에依하야四月中旬東京에서商協定키로되바 船運賃의關係로부터 現行賃率을그대로두게될모양이라고한다

商議後任副會頭

河合、戶島兩氏說

京城商議副會頭平井熊三郎氏의別世로因하야 後任副會頭問題가생겻는데 故平井副會頭는 中央物産株式會社代表로 議員에當選하엿슴으로 同氏의別世와同時에五日以內에 後任代表者를定하야會議所에 屆出치안흐면失格케되므로中央物産會社에서는酒井、芮兩氏中한사람으로選定屆出케될모양이다 그러나副會頭의後任은 中央物産代表에限치안흠으로 벌서暗中飛躍이開始되는데 朝運專務河合治三郎 戶島祐次郎 兩氏가有力視되다고한다

英借款問題

目下進行中

▲……孔財政部長談

【上海二十一日發聯合】上海에到着한財政部長孔祥熙氏는 二十一日午後五時 中央銀行에서 新聞記者團과會見하고 英國의對中借款問題에對하야 알에와가티말하엿다

中國의經濟恐慌에鑑하야 이번英國은 中國에 巨額의借款을하야 中國市場의復興을圖함을提議하고 同時에書面으로써 中國政府의意見과 便法을照會하엿다 이에對하야 國民政府는 이미書面으로써 回答을發하는同時에 深甚한謝意를表明하엿다

東拓緬羊分讓

各道의配定數量決定

東拓에서는 總督府의斡旋에依하야 總督府의緬羊獎勵指定道農會에九年度朝鮮産改良牡羊百六十一頭를譲與에와가튼 比例로分讓키로決定하고그中 江原道分二十二頭는이마受渡를完了하고 其他는四月中에完了키로되어잇다는데 各道의斡旋은알에와갓다(下單位頭)

▲咸北 四五 ▲江原 四六 ▲平南 三五 ▲平北 三五 ▲合計 一六一

米政府金賣却聲明

今後申請條件如何에딸허서

世界各國에向하야

【華盛頓廿一日發聯合】米國財務長官모겐도氏는 今二十一日米國政府는今後 申請條件如何에딸하서는世界各國에 金을賣却할準備가잇다고 發表하고 最近米國政府는멕씨코銀行及 그아테마라銀行에金을팔엇다 그리고그아테마라에는 昨年十二月中에 一萬온스의金을 팔엇다고發表되엇다

金通貨와磅、弗

關係가益複雜化

◇……爲替銀行側의所見內容

金本位危機說繼續

【東京電話聯合】白耳義內閣投出로因한 金本位블럭의危機가報道히傳하는데 今後의金通貨、磅、弗의 三角關係에 對하야 爲替銀行側의 所見으로는 從來보다도 一層 微妙한 關係에 잇게된다 即最近과가튼 金블럭念慮가 增大하면 于先大陸의 資金은 英上으로도 또 國際濟收支의點으로도 또는米國에 向하야 流出할것이나 그때地理的關係로도 磅貨가 가장세이게되야 必然的으로磅貨가 安定되면 米英크로스는 昂騰할것이다 그러나一般으로 弗貨는現在에 國內通貨政策의見地大陸方面에特殊한事情이 업슴으로 何等不安材料가 生길만한것이라고한다

無煙炭合同問題

殖産局長渡東

積積殖産局長은 無煙炭合同의 最後的工作을하기爲하야 二十二日午後三時 京城發渡東하얏다目下今同問題는總督府評價案을携行하고 先般亡石田鑛山課長에依하야 在東京各社首腦部間에 個別的折衝을繼續하고잇는데 各社態度는依然合同을 躊躇하고잇고成立까지에는 幾多의困難이잇서政治的折衝에入할形勢이라한다 그럼으로總督府는 早三月中에 그成否를決定할事情에切迫되야 今井田總監으로부터의 訓電에依하야 急遽殖産局長이渡東할터로 果然總督府最終工作이奏効할지 問題의進展은 모든角度로各方面에서 注目하고잇다한다

朝鮮米生產費

調查農家數

自作四、小作二比例

九年度外地米生産費는 五月中旬委員會를再開하고 決定할터인데 今議會에서도朝鮮米生産費가過다하야 問題가되엇든事實도보아 同委員會에서도朝鮮米生産費의調査方法等에關하야서도 相當히論議될것으로豫想된다 從하야朝鮮總督府도十年度産米의調査에就하야서는 萬全을期하고 目下準備를進하고잇는데 이미各道調査員을京城에召集하야 準備協議를終了하야잇슴으로 二月中에八百七十戶의農家를 選定코저 各道에命하야 調査를急히하고잇다 九年度調査農家를小作二、自小作二、自作二의比率로 三分하야調査를實施하얏섯는데 日本內地는 自小作를調査하지안엇슴으로 今回는 이것을 除하고小作四、自作二의 比率로 選定할方針으로서 調査員의受持는一人六戶이라한다

經濟界消息

▲北鮮製紙基地租案=朝鮮製紙工場基地를 選定키爲하야現地視察中의王子製紙光澤常役은 二十一日 入京하야二十二日 午前及午後 督府에殖産林兩當局을 訪問協議하엿는데 二十三日 午前中도總督府를訪問하고 大邱基地를內定한뒤 同日午後三時退京할豫定이라고

今日財界 (廿二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〇·八八一	一低
大阪期米 先限	三一·〇八	二低
◎三等米 一石	二七·五〇	不變
京城精白米一石	二六·八〇	不變
正租(仁川)改良	七錢九厘	
一斤價 在來	七錢八厘	

◎市中金融

金	一匁賣 十二圓七五錢	一匁買 十二圓三三錢
銀	二十四錢	三十三錢〇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今日止	比前日
朝新	二八·三〇	不變
東新	一四九·六〇	六〇高
日産	一〇四·六〇	六〇高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二〇一·六〇	一·六〇高
大阪棉花	六三·五五	三五高
大阪人絹	八七·六〇	一〇高
大阪砂糖	一〇·四四	四低
고무現	三一錢五	先三一錢〇

株式

揉合後에 少强

商況 (廿二日)

前場軟調 休日을지난今前場도 依然新規材料가업서 場面에倦氣滿滿이고 閑散裡少弛軟調로 强弱雙方氣迷彷徨이엇스나 即再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二十錢低인 百四十九圓十錢、朝鮮十錢低인二十八圓三十錢、鐘新百二十九圓五十錢 拓新十圓二十錢에 各大引되고 大新六十錢低에九十三圓三十錢一本이엇다

後場上進 後場은東新百四十九圓六十錢 日産百三圓八十錢 朝新二十八圓三十錢에小高寄後東新百五十圓臺 日産百四圓臺로一齊高이고好勢裡大引

總氣迷의彷徨

世界情勢는混沌하야 그關係를捕捉키어려우며 國內的으로도商品界不安이不去하고 各種産業部門도生産擴張後의困憊가커서 昏迷裡에잇슴으로 大勢樂觀論者도積極的으로進出치를못하며 環境의無視할수업서 自重하는터이고特히 東新先驅高도後續部隊의不續으로 百五十圓完全奪取가至難視될모양이엇다

日産高도不續

歐洲不安은 將來軍擴熱을膨脹케하야 鐵物類의先高豫想이濃厚할뿐아니라 日鑛은産金株로서重要한地位를占하고잇고 金本位崩壞의危機를傳할수록 金塊의世界的强味와相俟하야 日鑛의大持株會社인日産에도 買氣가相當하고東新의日産買人氣까지생기엇스며特히日産은 一割二分配當繼續增資期接近說等으로 百四圓臺에까지買進되어섯지만 海外經濟事情이複雜多端할뿐아니라 漫然如上의觀測은 一考를要할것이잇서日産高도不續이오 今前場은不氣乘閑散裡小跳이엇다

警戒되는諸點

金融은緩慢이라하나 실상생각는것가티 引緩치안코歐洲의險惡한空氣와 政局不安은 議會終了後로넘어갈것이며 金本位블럭危機로國際爲替動搖는 그前途를難測케하는一面 國威伸長의大材料로 밋고잇는例의 日中提携도英米의妨害로잘 具體化되지안어그實効가疑問이며 赤字財政의窮狀、事業界의反動豫想等과 相俟하야漫然한樂觀으로 株界에臨함을警戒할바이라는論이 잇다

實物前場取引

實買高六十枚

▲九州水力新 三三、七〇 ▲倉敷紡績 八六、五〇 ▲大分세멘트新 一九、五〇 ▲宇治電 四二、一〇 ▲朝鮮製鍊 一四、一〇 ▲朝日麥酒 三三、一〇 ▲京南鐵道 一六、五〇 ▲에라파이新 三三、八〇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低金利擔保으로 ……

今後의大勢는

天候가左右?

米의情勢는 期正兩界를不問하고 依然强調를繼續하면서도 또한伸悩의狀態를呈할뿐이다 要하면凶作의 翌年인만큼 持米側으로서누구나前途高價를 豫想하는關係이 相當히만흐나 日本內地不合인데 ……

市場六感

株

日産의緊張도풀리고 大新買氣도挫折되어 休日을지난今前場은 文字그대의閑散鈍狀 ▲전전번金曜日後場東新이百五十一圓三十錢으로 뛰엇다가 百四十八圓二十錢으로떨어져大波瀾이엇고 전번金曜後場도 百五十一圓二十錢으로올랏고 又再昨日百五十二圓十錢에까지올랏다가 밋그러젓섯는데 今日이또金曜이라 後場에一波瀾이또잇슬가? ▲그러나波瀾이잇던언 熱心强氣의

米

昨今의市勢는手數料程度의變動도업스니 이거때문 明케되기나기대릴수밧게無他途 할수업고 좀더强弱間環境이鮮하얏스니 이重大한問題를輕視 金本位블럭崩壞念慮란것이橫在 國威伸長은 비록잇다하나歐洲 日中好轉、日蘇親近等에 依한 나 難期일듯 ▲왜그러냐하면 비라는 爆發高는 어느點으로 着手하는날에는 一金八圓三十錢의損失을生하게되니 仕手들은잘아리傍觀得意? ▲仕手들은材料를捕着하지못하야恨歎 價子는記事材料가업서서恨歎▲ 餘 그래서市場은한숨과 하품으로 時日을消費할뿐이니 何時에나活氣의觀을呈할고▲때마침看花時期가臨迫하엿스니 알호로 一二個月은 더保合할모양? ▲本年은비록 凶作의翌年이나前途供給은 그럭저럭補給이 될모양이니 그다지 憂慮할것은업지만 今後의 植付如何가注目處▲植付氣歇을 呈하는때는 모르거니와 萬一 用水不足을 告하는때는 持米側의絶對賣惜으로 品貴의難을 免치못할모양▲그러한날에는 政府米의 拂下도躊躇하게될터이니그때는 例外의暴騰을告할지도亦未知이엇다두고보자

期米

膠着不變

閑散

前場膠着 再昨後場阪地三十一圓十錢止와共히 二十八圓六十二錢에 寄付하야 ……

後場釘付 後場은 二十八圓六十錢에 一丁低로始値後四節까지 六十一錢同價이고 此五節六十二錢으로 別個가리止場하라

全혀膠着不動

休戰도亦可

本月에入한以後 阪地는 二十丁反騰으로六十餘丁의反落을告하엿스나 當地는二十餘丁의反高와 三十餘丁의反落을 거듭하엿다 此三十餘丁의波紋도이러타할만한 何等의强弱材를胚胎하지안코다만 仕手의關係로往來하엿슬뿐이다 大體本年米의前途大勢는누구나凶作의本格的騰勢를 示할것으로 豫想하는바이나 既히凶作의行動을加하엿슴으로 更히續伸하지못하고 因而保合圈에入하야 今日에잇서 賣方針은絶對固執할수도업고 또需給難을憂慮하는今日에잇서 安心賣를할수도업는즉 차라리大勢가一場分岐를示할때까지 차라리休戰하기만 不如할모양이라고云云 果如何?

朝取期米取組高

▲賣方 ▲買方

堂島前場軟調

【大阪電話】依然閑散場面으로七節까지의買氣薄弱는岡崎朝鮮의七十枚이오賣는六節의百十枚가顯著하야東京側도買하얏다

各地正米

京城不勢

定期鈍重으로買付不進捗이오 依然一氣乘薄閑況場面이엇다 ㊀三等二十七圓九十五錢四等二十七圓六十五錢

仁川不振

地場의 在米는豊富로荷多狀이나 産地의賣物薄으로依然强調하고잇는데 日本內地의不買와 採算不合으로當用側의躊躇로昨今의 賣行은不振인 ㊂三等二十七圓九十五錢 四等二十七圓六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七錢

釜山保合

出廻 三千五百叺으로增加이오 定期不味이나實需側의買氣含으로 下遊商狀이엇다 今朝는産地로부터 整理的賣物이相當히만흐나 日本內地不合인데

南浦閑散

昨今의 日本內地不買로買氣가薄하고 保合을未脫인商狀으로依然閑散인一方 所持側의先高人氣가旺盛하야 極度로賣惜인 ㊀三等二十八圓十錢 四等二十七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

木浦不變

定期는 保合이나 人氣頑强으로不變이엇다 低價에는警戒하야 入荷照會가잇스나 持主는賣치안코 當用側도警戒躊躇하야 場面閑沈인 ㊂三等二十九圓 四等二十九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錢

群山傍觀

定期는 依然膠着으로 五輛、依然原料正租高로 氣乘薄이오小口이나마 當用側의取引이若干잇섯스나總히賣買共히 傍觀裡에終始하야 閑散인 ㊁三等二十八圓二十錢 四等二十七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大邱不動

休日後인 今朝도 定期의釘付狀態로一齊傍觀이나 産地의割高가 訂正되지안허市況이不振裡에推移되엇는데 氣配不變인 ㊂三等二十七圓七十錢 四等二十七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錢

金.白.銀.金

德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金白·銀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前)

土金 石金 高價買入

福

京城福力

京城府瑞麟洞三十番地ノ一 電話光化門一二八七番

土金 石金 鑛石分析 高價買入

正確·迅速

一、分析期間 三日以內

一、分析料金 一口 一圓(二口以上每口)

(延禧專門學校數物科 工業研究室特約分析)

金銀買賣 正 鑛石分析

正金商會

京城府明治町一丁目五五 電話本三六二六

金融 (廿二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廿二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廿二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織布 ▲日本妻頭市勢 ▲지카고期米 ▲紐育砂糖 ▲大連特産市場 ▲滿洲商況 ▲驛拝粕冲價

[illegible]

株式 (廿二日)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長期 ▲大阪短期 ▲大阪長期 ▲東定代引日步 ▲朝取短期 ▲東京現株

[illegible]

米 (廿二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朝取賣買高 ▲賣買高

[illegible]

商品 (廿二日)

▲大阪綿糸 ▲日本各地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棉花 ▲大阪砂糖 ▲各地人絹 ▲橫濱生糸 ▲滿外砂糖

[illegible]